간 등 록 번 호
1600006-000001-06

공군

www.airforce.mil.kr

2005.5 / 제323호

생각해 봅시다 / 효도와 결혼 생활
현장탐방 / 모형항공기 예선대회를 다녀오다
Zoom In /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

공군

제323호 | 2005.5

Contents

공군소식 Ⅰ - 57년 만에 새로 바뀐 공군 태극마크

현장탐방 - 제27회 모형항공기 예선대회를 다녀오다

Zoom In -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

4 참모총장 스케치

6 공군은 지금

생각해 봅시다
10 효도와 결혼 생활

공군소식 Ⅰ
13 57년 만에 새로 바뀐 공군 태극마크

공군소식 Ⅱ
14 따로 또 같이, 혼자가 아닌 임관식

공군소식 Ⅲ
15 제38전투비행전대 병사들의 일일 식당 체험근무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16 "소년소녀 탑건, 전원 출격!"

현장탐방
18 제27회 모형항공기 예선대회를 다녀오다

Zoom In
21 0 to 1,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

기획취재
24 공군 장병들의 특별한 도전, 軍요리 대장금에 도전한다

27 5월의 공군 약사

화제의 공군인
28 우리 언니는 제 동기랍니다!

세계의 항공무기
30 무인 전투기 X-45

세계의 우주력
32 지구접근천체(NEO : Near-Earth Object)

공군지 독자 여러분의 주소 변경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02)506-6237로 알려주십시오. 본지의 내용은 공군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나들이
예술 마을, 헤이리 34

그림 이야기
어머니, 그분의 자존심의 근거 38

법률상식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40

건강 365
현대인의 적, 변비 42

동아리 마당
방공포병학교 수화(手話)동아리, 수화(水花) 44

장병문예
스무살 이등병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영어 파파라치가 되자 48

문화 마당
5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50

마음으로 읽는 글
지금, 만나러 갑니다 52

영화 이야기
주먹이 운다 54

책으로 읽는 세상
자유의 감옥 56

기상전망대 57
독자의 소리 58
다른 그림 찾기 61
보라매 단상 62
알립니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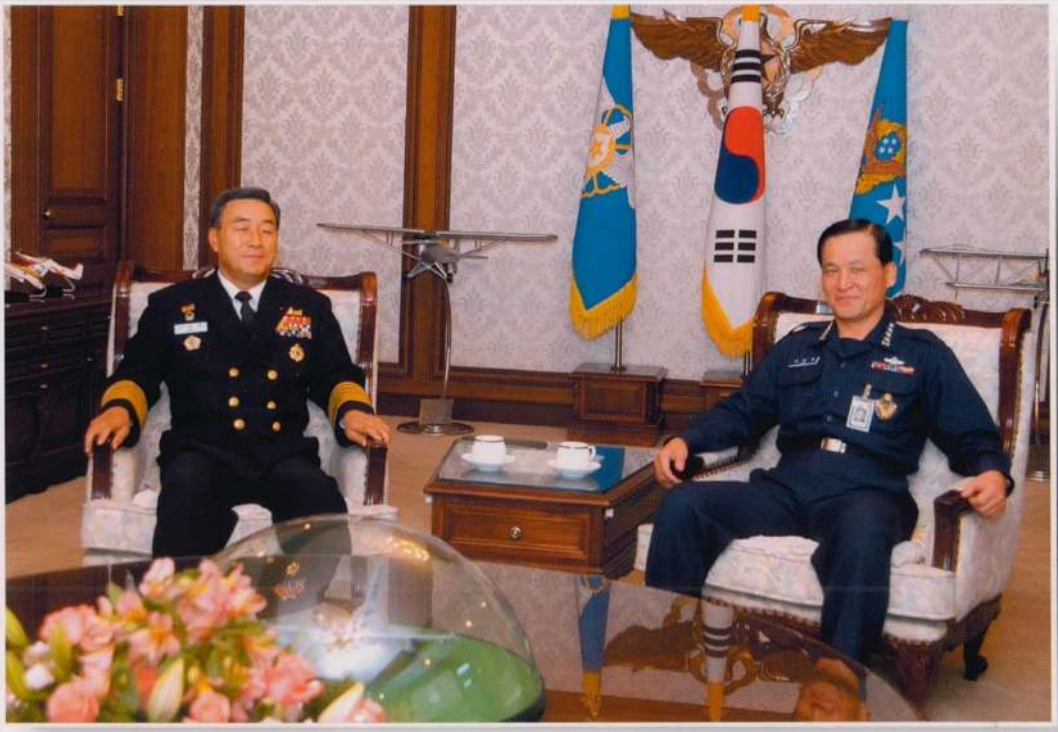
발행일자/2005년 5월 2일(통권 제323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33, 042-552-6233, 편집·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참모총장 스케치

F-4E 지휘비행 실시

참모총장은 4월 12일,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임 해군참모총장 취임 축하

참모총장은 지난 3월 29일 취임한 남해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총장은 "남해일 제독의 지휘 아래 대양해군으로서의 기틀을 굳건히 하기를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다이만 부대 2진 2제대 파병장병 격려

참모총장은 4월 15일, 공군본부에서 다이만 부대 2진 2제대 파병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은 임지로 향하는 다이만 부대 2진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1 한국 공군제17전투비행단과 미 해병대 1사단은 최근 17전비 훈련장에서 한 · 미 연합 활주로 피해 복구훈련을 가졌다.

2 교육사령부는 4월 1일, 사령부 연병장에서 군수 · 행정학교 창설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교육사령관(左)이 군수 · 행정학교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는 모습

3 의정부 · 오산 · 부천 · 대구 · 광주 등 다섯 개 지역 버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군 모병 영상광고. 이번 광고는 공군 예비역 인터넷 전우회 로카피스(LOKAFIS)가 전적으로 추진 · 지원하고 있다.

4 제16전투비행단은 4월 5일, 부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부대원들을 즉각 투입,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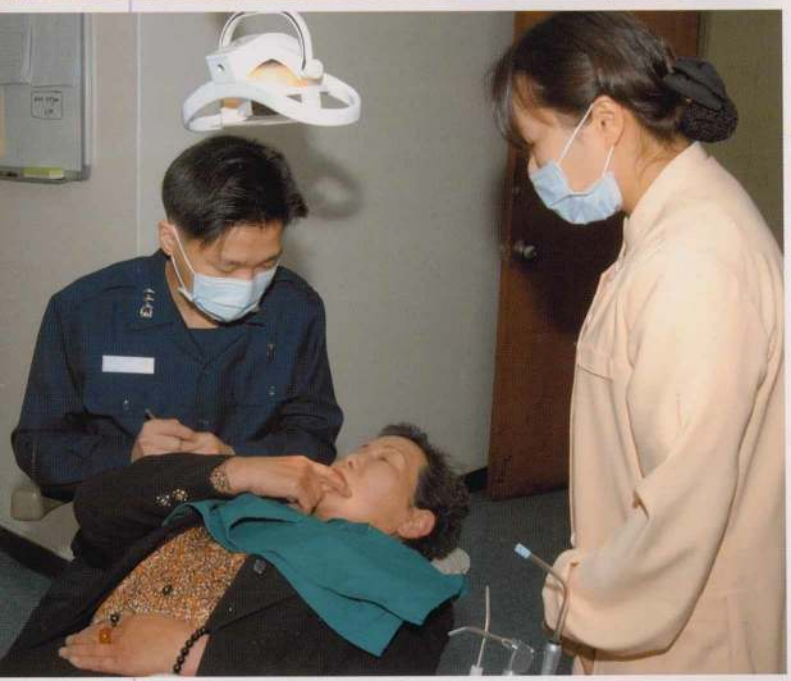
5 1,000만km 무사고 운행기록을 수립한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6 제1전투비행단은 4월 21일, 부대 내 주둔 중인 미군 2-1 방공대대와 함께 한 · 미 친선 체력경연대회를 열었다.

7 제8전투비행단은 4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시 기지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지 방호 · 화학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8 지난 4월 24일, 이라크 평화 재건 공수 1,000시간 비행 기록을 달성하고 기뻐하는 공군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원들과 미국, 일본 등 동맹국군 지휘관들.

9 4월 16일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친 제3훈련비행단 장병들



10 지역 주민들을 부대로 초청,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공군항공의료원

11 제5전술공수비행단 유류 절약 창고에서 실시된 민·관·군 합동 소방훈련

Family & 結婚生活

孝道

효도와 결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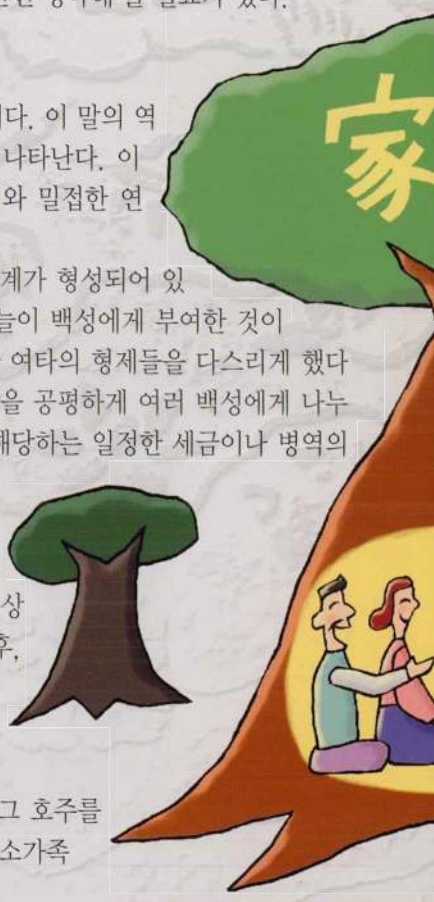
신 규 탁(연세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신에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환경, 사람들에 대하여 그 고마움이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꼽을 수 있는 이유로는 너무나도 가까이 매일 같이 지내다보니 그냥 무심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일차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이다. 부부, 부모, 형제, 자식 등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오월 가정의 달을 기회로 우리는 가까운 가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란 말뜻

우리가 흔히 쓰는 가족이라는 말은 한자어 "가족(家族)"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의 역사적인 어원은 대단히 길어서 저 멀리 중국 주나라 시대의 문헌에도 나타난다. 이 말의 생성 배경에는 주나라의 종법제도(宗法制度)와 봉건적 토지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일찍이 토지를 매개로 한 임금과 백성간의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황제의 권한이 미치는 땅을 왕토(王土)라 칭했는데, 이 땅은 하늘이 백성에게 부여한 것이고, 하늘은 인간 중에서 제일 덕이 있고 지혜로운 자를 큰아들로 삼아 여타의 형제들을 다스리게 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큰아들이 황제가 되어, 하늘이 내려준 땅을 공평하게 여러 백성에게 나누어주면, 백성들은 그의 대가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조, 용, 조에 해당하는 일정한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

황제는 백성들이 사는 땅을 지켜주고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고 걷어들이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왕사(王事)의 말뜻을 연구해 보면 드러난다. 이렇게 농토를 매개로 하여 이른바 상하 신분적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제도가 만들어져, 위로부터 황제, 제후, 사대부, 백성 등의 사회계층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최소의 공동체 단위를 가(家)라고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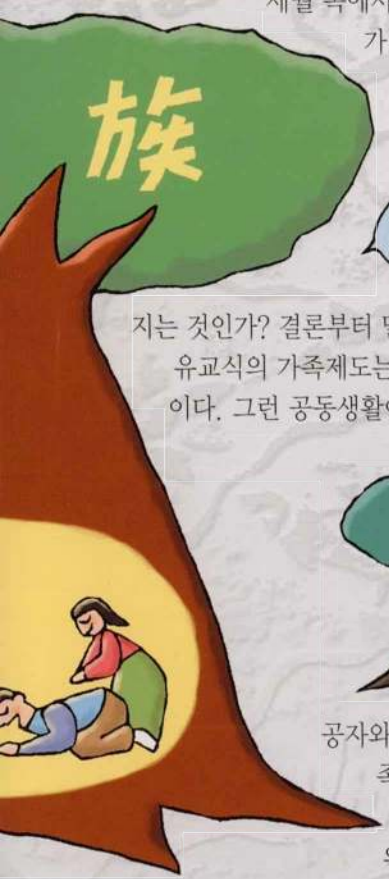
한 개의 가(家)에는 지금의 가장 격에 해당하는 호주(戶主)가 있고, 그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가족(家族)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요즈음의 소가족

오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를 다잡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부부가 잘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하는 속에서 군자의 도가 시작된다. 그런 다음에 군자는 효와 제의 덕목을 근본으로 삼아서 여타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제도를 예로 들어보면, 아버지가 가장이 되고, 어머니, 나, 동생, 형 등이 가족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공동체 속에서 호주, 즉 가장은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이 생활하는 거주지에 대한 결정권이 호주에게 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교육, 감호, 징계, 혼인, 재산관리 및 처분권 그리고 가족의 부양권 등이 호주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것이지만, 호주의 권한은 큰아들에게 상속이 된다.

최근에 일고 있는 호주제 폐지는 앞에서 말한 주나라 때에 형성된 종법제도와 토지제도 속에서 생긴 그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이 유학(儒學)을 국시로 정하면서 이런 제도는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갔고,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문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민법상의 호주와 가족에 관한 법률이 성문화되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봉건적인 토지경제 체제의 기반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세월 속에서 경제 형태도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종전의 가족제도나 호주제도가 그 실효성을 갖기에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제 국회의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해 가게 되었다.



가족간에 지켜야 할 덕목

위에서 간략하게 본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가족제도는 유학의 이념으로 재정비된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경제를 기반으로 하던 유교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족 공동체는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해보면 그렇지는 않다.

유교식의 가족제도는 퇴색해 가더라도, 인간들이 삶을 영위하는 한 떠날 수 없는 것이 공동생활이다. 그런 공동생활이 있는 한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공동체의 윤리가 만들어진다. 공동생활에서 만들어진 윤리는 긴 세월과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진리에 가까운 지혜가 들어있다. 이제 유학자들이 남긴 지혜를 살펴보도록 해보자.

유학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족제도를 정비해감과 동시에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덕목을 생각해 내었다.

주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춘추 시대에 활동했던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논어』에 보면 가족 공동체의 윤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효(孝)와 제(弟)이다. 공자의 제자 유약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자는 근본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근본이 확립 되어야 도덕이 성립된다. 효와 제야

말로 인(仁)의 근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예절을 말한다. 그리고 제란 형제간에 서로 공경하고 우애 있음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덕목이야말로 유학에서 최고로 치는 인(仁)보다도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도덕의 근본이 효와 제라는 말이다. 그리고 윤리의 근본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회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그러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 그것은 성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가정의 시발점은 남녀의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기면, 거기에서 부모자식간에는 효의 윤리가, 형제자매들 사이에 제의 윤리가 형성된다. 또 『논어』의 예를 들어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의 도는 그 최초의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공자의 제자인 유약은 군자가 힘 써야 할 근본적인 덕목을 말했고, 스승은 그런 군자의 도야말로 부부생활을 잘 하는 속에서 시작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덕의 원천이 효와 제이다. 그런데 이런 효와 제를 실천하는 군자의 도는 부부 생활에서 시작이 된다. 유학을 그저 지난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깊은 통찰이 서려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를 다잡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부부가 잘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하는 속에서 군자의 도가 시작된다. 그런 다음에 군자는 효와 제의 덕목을 근본으로 삼아서 여타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한 군인들은 배우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오월을 맞이하여 배우자의 노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부부가 화합하는 속에서 효도 나오고 형제간의 우애도 나올 것이다.

아직 미혼인 군인들은 군 생활을 잘 하고 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훌륭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잘 절제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배우는 기간으로 삼는 것도 효도의 한 길이다.

57년 만에 새로 바뀐 공군 태극마크

우리 공군의 첫 태극마크 – since 1948

1948년 9월 15일 서울 상공. 태극마크가 선명히 그려져 있는 L-4 연락기 10대가 편대를 지어 전시비행(展示飛行)을 했다. 우리의 태극마크를 단 항공기가 최초로 하늘을 날게 된, 실로 역사에 길이 남을 비행이었다. 항공기 한 대 없었던 육군 항공부대(공군의 전신)가 미 7사단 비행대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최초로 인수한 것은 9월 13일. 비행기량이 뛰어났던 우리 조종사들은 인수 당일 각각 1회씩 시승해보고는 10대를 동시에 이착륙하고 편대비행하는 실력을 보여 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서울 상공 전시비행은 그 이틀 뒤. 우리 공군의 첫 태극마크는 그 이틀 사이에 디자인되고 도색되었다고 한다.

"내가 어려서 망명하여 남의 나라 군문(軍門)에서 몽매에도 잊지 못한 소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 나라의 군복을 입고, 내 나라의 상관에게 경례를 하며,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나는 것이었다. 그 염원을 성취하고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공군 창설의 주역이었으며 당시 국방부차관이었던 최용덕 장군이 9월 15일의 전시비행을 보며 한 말이다. 어찌 최장군만의 감회였으랴. 이날의 전시비행, 이날의 태극마크는 실로 모든 공군인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벅찬 감회와 희망을 전해 주었다.

우리 공군의 새 태극마크 – since 2005

공군의 태극마크를 태극기 고유 형상에 보다 가깝게 개선하자는 의견이 공군 내부에서 간간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2004년 9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주관으로 태극마크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예비 디자인 작업이 이뤄지고, 예비역 · 현역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2005년 2월 최종 개선 도안이 결정됐다.

과거의 태극마크가 태극문양 좌우에 적색 줄무늬가 있고, 마크 전체에 청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던 데 비해, 새 태극마크는 줄무늬 대신 태극 4괘 중 하나인 '건(乾)'을 배치하고 청색 테두리를 삭제하여, 태극기의 고유 형상에 한층 가깝게 됐다. '건(乾)'은 '하늘'을 상징하기에 공군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도색 작업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돼 공군의 전 항공기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초도기를 출고한 F-15K도 물론 새 태극마크를 단다.

이제 공군의 모든 항공기는 태극기의 고유 형상에 한층 가까워진 새 태극마크를 달고 영공을 수호하게 된다. 특히, 새 태극마크는 올해가 광복 60주년이라는 점과 맞물려 장병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리라 기대된다.

공군본부 대위 조 세 영

따로 또 같이, 혼자가 아닌 임관식

이상하다. 지난 4월 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임관식은 뭔가 이상하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동기들과 북적대면서 하는 법이고, 영예로운 임관식도 의당 동기들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듯하다. 그런데 혼자 임관식을 치른다. 더군다나 임관식은 3월에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 임관식은 4월에 들어서야 치러지는 지각 임관식이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해외위탁교육생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임관식

이번 임관식은 일본 방위대에서 위탁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김계현 소위(23세, 53기)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임관식이었기 때문에 내용도 형식도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사관학교는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미국 공군사관학교, 일본 방위대 등과 협력해 해외위탁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일본 방위대에는 1학년생도를 대상으로 매년 1명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일인 임관식의 주인공 김 소위는 2002년 3월 일본 방위대 위탁교육 대상에 선발되어 2005년 3월 교육을 수료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방위대의 교육기간이 지난 3월 8일 치러진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날짜 이후에 끝난다는 것. 이 때문에 김 소위는 동기들과 함께하는 임관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해외위탁교육생들은 통상 현지 졸업식을 마치고 귀국하여 간단한 신고를 한 후 임관 사령장만을 수령해 왔다.

장교의 긍지와 끈끈한 동기애가 함께한 일인 임관식

하지만 한번 대한민국 공사생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공사생도. 공군사관학교는 해외위탁교육생도들에게 장교로서의 긍지와 동기애를 심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일인 임관식을 마련했다. 이번 임관식에는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 참모가 모두 참석했으며, 임관식 진행도 임관 사령장 수여, 임관선서, 후배 생도들의 금지환 증정식, 퍼레이드 등 정식 졸업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홀로 임관선서를 한 김 소위는 "이렇게 성대한 임관식을 치르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항공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이번 임관식을 위해 김 소위의 가족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등의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일인 임관식. 이날 임관식을 통해 김 소위를 비롯한 53기 동기생 모두는 더욱 단단해진 동기애를 가슴에 품은 멋진 장교들로 거듭날 수 있었다.

원고정리 편 집 실

오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제38전투비행전대 병사들의 일일 식당 체험근무

이솝우화에서 늑대의 집에 초대된 학 앞에 놓인 음식 그릇은 납작한 접시였다. 이 우화에서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군복무 기간에 내무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 병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아무래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에서는 자진하여 동료 병사의 입장에 서보고, 그리하여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 보려는 병사들로 가득하다. 부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정이 넘치는 것은 당연지사.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만은 푹 쉬어라!

지난 4월 8일, 38전대 사병식당은 식사준비로 분주하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왠지 어색하다. 야채 다듬는 모습하며, 뭔가 열심히 휘젓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하고 서투르다.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며 환하게 웃는 미소 하나만은 일등 요리사의 모습이다.

이날 식사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서투르게 보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평소 부대의 식사를 책임지는 급양특기 병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급양특기 병사들이 다른 특기 병사들에 비해 근무부담이 크고 연중 쉬는 날이 없어 고충이 크다고 느낀 38전대 병사 자치 위원회 대표병사 11명은 이날 급양특기 병사들을 대신하여 주방에 나섰다.

병사 자치 위원회는 급양특기 병사들의 고충을 부대 지휘관에게 알려 이들을 위한 위로행사를 건의했고, 지휘관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병사 자치 위원회 대표병사들의 식당 체험근무가 이루어지게 됐다.

병사들의 고충, 같은 병사들이 제일 잘 알죠

병사 자치 위원회는 공군 각 부대의 특기별 선임병사들로 구성된 병사들만의 조직이다. 병사 자치 위원회는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한데 모여 토의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생활에 적용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번 급양특기 위로행사처럼 공식적으로 상부에 건의하는 등 '병사에 의한 군조직 운영'이 능동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설거지까지 이어지는 급양특기 병사들의 고된 일과를 몸소 체험한 병사 자치 위원회 위원장 진청휘 병장(24)은 "이번 체험을 통해 타 특기 병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서로 특기와 임무가 달라도 자기 부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병사들의 고충은 병사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병사 자치 위원회가 지니는 힘이다.

법정 스님은 "당신의 마음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행복의 의미를 되짚었다. 38전대 병사들은 우리 부대에 꽃이 피어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대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원고정리 편 집 실

"소년소녀 탑건, 전원 출격!"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개최

전국의 예비 파일럿들이 자신의 조종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가 5월 22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것(우천시 5월 29일).

미래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항공사상에 대한 관심과 공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79년 처음 개최한 이 대회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전국 15개 지역, 50일 간의 예선대회를 거쳐 청주 본선대회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되었다.

'자유비행'과 '동력비행' 두 종목으로 나누어 열려

제27회 모형항공기 본선대회(이하 모형항공기 대회)는 크게 두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 치뤄진다. '글라이더'와 '고무동력'으로 나누어진 자유비행 종목은 이미 예선대회를 통해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선발된 1,200여명의 모형항공기 고수들이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 대회장에서 직접 제작한 모형항공기로 대회를 치루게 되는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참가자의 모형항공기 제작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선대회에서만 실시되는 동력비행 종목은 '유선 조종', '무선 조종', '무선 조종 헬기', '무선 글라이더' 등 네 부문에 걸쳐 경기가 시행된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동력비행 경기는 보다 역동적인 항공기 조종을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진검승부! 실력을 마음껏 펼쳐라!

이번 대회부터는 참가자들이 유감없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수정하였다. 우선, 동일한 종류의 모형 항공기 여러 대를 지참하는 것이 허용되어 경기 중 기체가 파손되더라도 인가받은 나머지 예비 항공기를 사용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초등부만 해당). 자신의 실력과 무관하게 환경이나 사고에 의해 탈락하는 불상사는 이제 없어진 셈이다.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여 참가에 어려움이 많았던 제주도 지역 본선 참가자들에 대해선 공군 수송기에 탑승시켜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최대 모형항공기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력 있는 참가자라면 모든 제약조건을 넘어 최대한 본선대회에 참가시킬 예정이다.

바야흐로 전국 모형항공기 고수들의 '진검승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5회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도 함께 개최

예비 파일럿들의 명승부는 오프라인 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모형항공기대회 당일에는 '제5회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도 함께 개최되어 전국의 사이버 파일럿들이 모이게 된다.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는 해마다 유명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대거 출전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젊은 층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는 총 5개 종목으로 나누어 열린다. 최신예전투기 F-15를 조종하고 적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는 '공대공 전투', F-16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폭격하는 '공대지 공격',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Airforce One)을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하는 '지상착륙', 공중판 자동차경주를 연상케하는 '레이싱',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문인 '비행기 설계'까지 실제 비행을 방불케 하는 열띤 경쟁이 사이버 상에서 펼쳐진다.

볼거리만으로도 풍성한 '디지털 항공과학 축제'

대회 참가자를 위해 준비된 즐거움은 경기 운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경기 외적인 축하행사 또한 풍성하다.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화려한 군악 및 의장 시범이 전개되며, A-37로 구성된 공군의 전문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Black Eagles)"의 환상적인 묘기비행, 연예인 병사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인다.

여기에 항공우주연구원, KAL, 보잉, KAIST 등의 홍보 부스, 실제 공군 운용 전투기들의 시뮬레이터와 조종사 체험 코너, 에어로 트림 3차원 가상현실 체험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전시회 등이 열릴 것이다. 단순한 경기 시행에 그치지 않고 '과학 공군'의 면모를 실감할 수 있는 '디지털 항공과학 축제'로 치르겠다는 목표다.

예비 파일럿들의 꿈, 모형항공기대회

모형항공기대회에서 금 · 은 · 동상을 수상한 참가자에게는 공군참모총장상, 장려와 입선은 공군사관학교장상의 영예가 주어지고,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한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시상한다.

오프라인 ·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예비 파일럿들의 경기와 함께 각종 축하행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가득할 모형항공기대회. 모형항공기들의 날개가 청주 하늘을 수놓을 장관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원고정리 **편 집 실**

비행시뮬레이션대회 장면

모형항공기대회 본선 경기(자유비행 종목)

모형항공기대회 본선 경기(동력비행 종목)

제27회 모형항공기 예선대회를 다녀오다

예선대회장의 뜨거운 열기

나무심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푸르던 식목일 아침,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제27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충북북부지역 예선이 개최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모형 항공기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기자. 출전자들의 손에 하나씩 들려있는 모형 항공기를 바라보며 오늘 취재는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대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그 당시 밤을 새워 만든 비행기는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땅으로 곤두박질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공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형 항공기 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직접 부대에 도착해보니 그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충북 지역 사람들은 모두 여기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초·중·고등학생만 천여 명 이상 된다고 하니 장차 하늘을 책임질 주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흐뭇하기까지 했다.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조심스레 모형 항공기를 손질하는 출전자들. 오늘의 예선 통과자는 과연 누가 될지 어디 한번 살펴볼까.

군악공연

경기만큼 멋진 식전행사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회식을 비롯하여 많은 식전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구경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블랙이글의 축하비행. 제트엔진의 굉음과 하얀 연기를 남기고 눈앞에서 이륙한 블랙이글 항공기들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때로는 아찔한 곡예비행으로 깜짝 놀라게 하고, 때로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 궁금증을 자아낸 블랙이글의 에어쇼를 보면서 관객석에서는 끊임없이 탄성이 흘러나왔다. 비행을 마친 후 사인회를 개최한 블랙이글 조종사들의 인기는 단연 최고! 기자 역시 조종사들의 멋진 모습에 반해 취재도 잠시 잊은 채 사인회의 긴 행렬에 동참했다.^-^

블랙이글의 열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군악대의 힘찬 음악 소리가 행사장 가득 울려 퍼지며 다시 한 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연주중간에 깜짝 등장한 장병들의 춤 솜씨는 연주 실력만큼이나 일품이었다. 뒤이어 등장한

초등부 경기장면

페이스 페인팅

의장대 역시 절도 있는 동작과 구령, 신기에 가까운 총기 묘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범행사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의장대는 우렁찬 축하 총포로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누구 비행기가 가장 오래날까?

경기는 오전의 초등부, 오후의 중·고등부 경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출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조별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 종목은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의 두 가지 부문으로, 총 두 번의 경기를 통해 좋은 기록이 올라가는 형식이었다. 오늘 지역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다가오는 5월 22일(예비일 2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다들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파이팅을 외쳐보았다.

대회장 한편에서는 아직 모형 항공기를 만들지 못한 출전자들의 분주한 손놀림이 가득했다. 설명서를 읽어가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날개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종이를 붙이는 모습.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 고무 동력기에 고무줄을 매는 모습. 너무도 진지하고 열중한 모습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였다.

애써 만든 모형 항공기를 손에 꼭 쥐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출전자들의 표정에서는 사뭇 긴장감이 묻어 나왔다. 심판의 구호에 맞춰 힘껏 하늘을 향해 날린 비행기. 그러나 정성껏 만든 비행기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속상해 하는 출전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안타깝게 만들었다. 한편,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산을 넘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버린, 이른바 '무한대'를 기록한 출전자들도 있었다. 작은 모형 항공기가 바람을 타고 한없이 하늘을 누비는 장면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이 밖에도 경기 진행 내내 항공기·무장·장비 전시, 조종복 착용 사진 촬영, 캐릭터 인형복 기념촬영,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잠시도 앉아서 쉴 틈이 없었다. 평소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항공기와 장비들을 구경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구경하는 부모들도 오랜만의 나들이에 덩달아 상기된 표정이다. 조종복을 입고서는 늠름한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고 조종석에 앉아 마치 진짜 하늘을 날고 있는 마냥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미래의 듬직한 공군 장병의 모습이 엿보였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킬 생각을 하니 왠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블랙이글 에어쇼

하늘 높이 날 아오른 동심

꿈과 희망을 담은 모형 항공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오늘 대회에 참가한 출전자들과 관람객들의 마음 역시 하늘로 날아갔을 듯싶다. 비록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출전자들도 항공기를 만들고 날리는 내내 푸른 하늘 위에 꿈을 그리며 좋은 기억으로만 가득했으리라.

무엇보다도 이번 모형 항공기 예선대회를 통해 공군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화합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남은 것은 5월 공군사관학교에서의 본선 경기.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예선대회장을 나선다.

객원기자 **백 예 니**

▲ 블랙이글 조종사들의 사인회

0 to 1,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 창설식 장면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장 이성남 중령
"0 to 1.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입니다."

일년에 한번 특별한 날이 있다.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뭔가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등등… 그리고 '생일'이 있다. 미역국을 거르고 바삐 찾아간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생일' 장소가 되었다. 생일 풍선 대신에 화려한 컴퓨터 화면과 기계소리로 난생처음 최첨단의 생일을 맞을 수 있었다!

생일 선물의 감동은 가치에 있다. 소박한 선물에도 사연과 정성이 있다면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그런데 이 '가치'를 측정하기란 정말 어렵다. 특히 '기술'이나 '정보'의 가치를 안다는 것… CD 한 장의 가격이 전투기 한대의 가격과 비슷하다면, 혹 더 비싸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가치. 그 가치를 알고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다.

전대급 부대로 승격되다!

지난 4월 1일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이하 항공SW지원소)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97년 군수사령부 제86항공전자정비창 소속 부대(대대급)로 창설된 이후, 우리군의 유일한 항공무기체계 SW연구·개발부대로 여러 역할을 맡아 오던 항공SW지원소가 마침내 전대급 부대로 승격되는 행사가 거행되었던 것. 이는 F-15K 및 T-50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기술지원 업무의 확대와, 유사무기체계 소프트웨어분야 통합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편제 개선 필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을 한다는 것은, 물고기를 시장에서 사오기만 하던 사람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 직접 물고기를 잡게 된 것과 같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값이 얼마가 됐든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면 물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잡으면 되는 것이다.

12년전,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 첫 해외교육을 시작한 '항공SW지원소'. 이제는 물고기 사는 값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하는 공군의 효자 부대가 되었다. 물고기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 항공관련 소프트웨어의 값은 '수억'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준. 지금까지 항공SW지원소가 절약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다

요즘은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한다. 하드웨어 사양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인 운영체계가 없다면 고철 덩어리의 가치 밖에 안 된다. 항공기도 마찬가지. 항공기 기체의 기계적 성능도 중요하지만, 기체 제어, 레이더, 무기체계 등 항공작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들이 현재 운용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며, 무기체계의 성능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첨단 무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비행시뮬레이션을 디자인하고 있는 요원들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터 장비로 검증하고 있다.

항공SW지원소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3가지 분야, 항공기, 시뮬레이션, 전자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새로 만들지 않아도 새롭고, 향상된 성능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예로 KF-16을 들 수 있는데, 현재 7차의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항공기 기능 향상 뿐 아니라 한국상황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조종사의 임무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마어마한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 향후 도입될 F-15K 및 T-50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입된다고 생각하면 항공SW지원소의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

공군의 벤처기업

항공SW지원소에서 기자를 인솔한 개발관리실 진용일 실장님이 가장 먼저 안내해 준 곳은 '정보화 교육장'이었다. 이곳에 항공SW지원소의 '꿈나무'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치 고3 독서실에 들어 온 것 같은 긴장감과 집중력이 느껴졌다. 3개월째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강은미 중위와 이현정 중위는 서로 도우며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해야 할 공부가 많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들이 밝히는 학구열이 항공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밝히고 있었다.

크기의 고드름 모양의 스티로폼 뿔이 벽과 바닥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곳이었다. 그 삼각뿔의 정체는 탄소섬유로 실험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파 실험을 위해 외부의 모든 전파를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한다. 가지고 간 휴대폰은 뿔의 기세에 눌려 모든 안테나를 내려놨다!

'정보화 교육장'을 거쳐, 항공기 소프트웨어실,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실, 전자전 소프트웨어실을 차례로 보는 동안 마주친 성실하고, 진지한 눈빛의 요원들. 그들은 마치 어느 벤처기업의 연구원들 같았다. "이 장비는 말이죠…, 이 프로그램은 말이죠…" 각 사무실을 돌 때마다 기자를 맞이하는 차근차근한 목소리들. 그 동안 일궈낸 굉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목소리엔 조금의 교만도 없었다. 대신,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는 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전자파 시험실

한편, 항공SW지원소의 연구는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선 조종사들이 건의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컴퓨터 테스트와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거쳐 실제 항공기로의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항공SW지원소는 실제 항공기 적용 이전 단계의 테스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장비들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시설은 '전자파 시험실'로 완벽한 방음이 되는 커다란 방에 다양한

0 to 1, 가능성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두뇌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일찍 알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과감히 개척, 새 길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있기에 항공SW지원소의 표어는 0 to 1이다. 창설 12년. 항공SW지원소는 현재 걸음마 단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 종주국 미국의 어깨도 이제 멀어 보이지만은 않는다. 요원들의 집요한 노력, 그리고 공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항공SW지원소 '제4세대' 요원들이 배출되고 있다며 흐뭇하게 웃으시는 '1세대' 이성남 소장님. 소장님은 요원들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셨다. 기자도 연구개발 성과와 업적들을 보면서 사회에 나가면 몸값이 대단할 분들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취재를 마치고 나와 바라본 하늘은 맑았다. 드문드문 하얀 구름들 사이로 오늘 만난 항공SW지원소 요원들의 얼굴이 흘러간다. 이들이 함께 하는 한, 우리 공군이 지키는 하늘은 언제까지나 '맑을' 것이다.

객원기자 **이 원 우**

공군 장병들의 특별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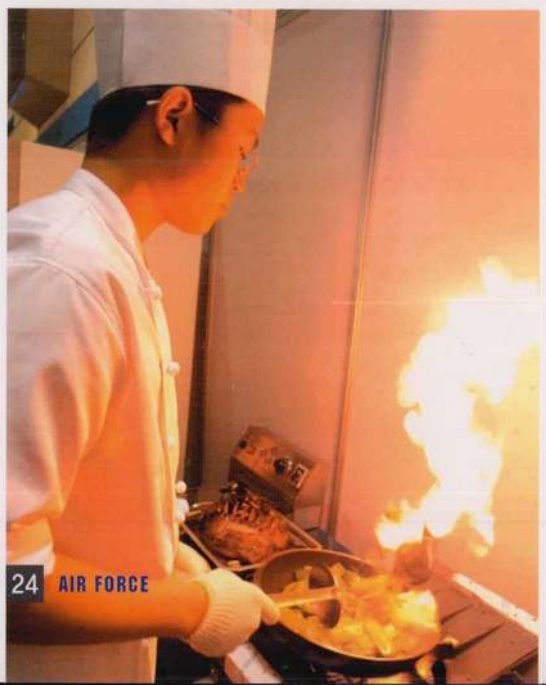
軍요리 대장금에 도전한다

"이건 너무 짜지 않습니까?"
"생선 가시는 사전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씩씩한 군인들의 말투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내용들이 오고 가는 이곳은 제16전투비행단(이하 16전비)의 장교식당 조리실.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임에도 이곳에서는 열띤 토의가 한창이다. 장교식당의 이정완 병장과 장명순 상병, 사병식당의 김종형 상병과 박종배 일병이 바로 그 주인공들. 부대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요리사들, 그들은 지금 특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꿈을 향한 도전은 즐겁기만 하다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200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가 주관하는 '군인요리 경연대회'. 이 대회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 조리병 및 경찰 조기경을 참가 대상으로 하며, 창작 더운요리와 찬요리, 규정종목 부문에 대한 경연을 실시한다. 바로 여기에 16전비 네 명의 조리병이 도전장을 내민 것.



사실 이 네 명의 병사들은 모두 조리학을 전공했고, 한 개 이상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요리사들이자, 미래의 조리장들이다. 본인들에게도 가슴 설레는 기회인 이번 대회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각자의 자유시간을 모두 쏟아 부었다. 창작요리를 개발하고 조리법(recipe)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네 명이 가진 모든 아이디어와 역량을 집중시켰고, 네 명이 하나가 되어 손발을 맞추는 연습은 군사훈련을 방불케 했다.

"단체전은 역할분담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명의 호흡이 경기의 생명이므로, 매일 저녁 토의와 연습으로 경기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국제대회로는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회. 반드시 첫 우승자가 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친 다음이지만 눈빛엔 생기가 가득하다. "힘이 들기보단 재미있고 신이 납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인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젊음은 아름답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공군 장병들은 그래서 아름답다.

드디어 내일이면…

대회 하루 전. 재료를 준비하는 손길이 진지하다. 그릇마다 랩을 씌워 손질한 재료의 이름과 용도를 매직으로 꼼꼼하게 적어둔다. 그 동안의 노력이 담긴, 너덜해진 연구노트를 꺼내 경기장에 가지고 갈 재료들을 다시 살핀다. 이윽고 부대에서 준비해 준 미니버스가 도착한다. 미니버스엔 다양한 물건들이 실린다. 요리재료에서부터 아이스박스,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요리 모자까지… 체크 또 체크! 담담한 표정으로 손발을 맞추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

제1회 군인요리경연대회

각국의 요리사와 요식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세계요리박람회. 그 중에서도 군복을 입은 요리사들의 경연대회는 수많은 관람객과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미8군, 경찰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선보이게 될 경연대회장. 조리장비가 갖춰진 5개의 부스가 있고, 각각의 부스에서는 부대의 이름을 내건 참가팀들이 지정된 시간을 받아, 동시에 요리를 시작한다. 조리과정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심사가 끝나면 출품작들은 전시, 또는 관람객들에게 시식의 기회로 제공된다.

깔끔한 조리복과 앞치마에 요리 모자까지 쓰고 등장한 16전비팀 네 명의 선수는 이전 참가팀들이 조리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작전회의에 한창이다. "우리 요리가 훨씬 맛있습니다. 나중에 꼭 맛보십시오."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 드디어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우리 선수들. 조리복에 새겨진 부대마크와 감청색 명찰이 자랑스럽게만 보인다.

크러스트를 무친 한방 양갈비와 구운 야채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각 부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인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 중에서도 역시 멋지고 신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공군팀이 단연 인기. "공군 아저씨들이 한대?"라며 여고생들은 모여들고, "공군이 위생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리 전문가들도 한마디씩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군인은 짬밥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시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관람하던 주부들은 요리의 조리법을 얻어가느라

다시 줄을 서기도 했다.

그릇을 재빠르게 세팅하는 이병장, 불길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야채를 볶는 김상병, 오븐담당 막내 박일병, 메인요리를 준비하는 장상병… 시간이 흘러 고소한 향기와 함께 탄생된 16전비의 창작요리는 "크러스트를 묻힌 한방양갈비와 구운 야채". 와인과 한약재로 재워 양갈비의 노린내를 말끔이 없센 것이 획기적인 조리법으로 평가받고, 양갈비를 둘러싼 꿀이 섞인 크러스트는 고소함을 더했다. 장식을 위한 야채들도 올리브유에 볶아 각각의 소스를 마련하는 정교함을 보여, 다른 팀과 확실히 차별되는 수준 높은 요리가 탄생했다. 심사 후의 시식시간에는 부스의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관람객이 몰리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16전비 팀원들은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한 조각씩 잘게 잘라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이들은 진정한 요리사의 마음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우승!

이튿날 규정종목 경기까지 모두 마친 선수들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자신에 넘치던 표정들은 점점 굳어가고, 드디어 가장 주력했던 종목인 창작 더운요리부문의 발표가 있었다. 영예의 금상 수상! 관람객들에게 압도적 인기를 끌었던 16전비의 양갈비 요리가 심사위원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이다. 이어서 발표된 규정종목에서도 은상을 차지했다. 금빛 · 은빛 프라이팬 모양의 메달을 목에 걸고 상장을 품에 안은 그들의 얼굴에는 성취의 환희와 기쁨이 가득했다.

"드디어 해냈다!!"

도전은 계속된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서도 제 꿈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팀장님(김기수 원사)과 공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 전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대원들의 따뜻한 마음, 고생을 함께한 팀원들과의 우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과감히 도전한 용기와 자신감… 이들은 제 평생 간직할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젊음은 아름답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공군 장병들은 그래서 아름답다.

미래의 일류 요리사를 꿈꾸는 네 명의 병사들, 이들은 도전했고 목표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다양한 자신의 특기와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우리 공군 장병들. 이들 모두의 도전 또한 계속될 것이다. 이들 역시 도전한다는 것으로 빛나고, 자신의 빛나는 열정을 기꺼이 국가에 헌신하는 젊은 공군인이니까!

제16전투비행단 중위 **오 진 숙**

창작 더운요리 금상을 거머쥔
"크러스트를 무친 한방 양갈비와 구운 야채"

5월의 공군 약사

T-6 건국기 도입 및 명명식(1950)

1950년. 한국공군의 항공력 증강을 위해 국민들이 벌인 항공기 헌납운동으로 3억 5천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이에 공군은 캐나다로부터 T-6 항공기 10대를 구입, 1950년 5월 14일 여의도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T-6 항공기에 대한 명명식을 거행하였다.

T-6 항공기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총칭 "건국기"라 명명하였으며, 6·25전쟁시에는 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였고, 전쟁 후에는 조종사 비행훈련 임무를 수행하다 1962년 12월 1일 퇴역하였다.

유치곤 대위 200회 전투출격 기록수립(1953)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11일 강릉. 한국공군의 첫 번째 단독출격작전과 함께 전투출격을 시작한 유치곤 대위는 1952년 5월 18일 100회, 1953년 5월 30일 2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하고 휴전시까지 총 203회의 전투출격을 실시, 6·25전쟁 중 한국공군 조종사로는 유일하게 200회 이상 출격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2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한 유치곤 대위

- 5. 1 공군사관학교 제주에서 진해로 이동(1951)
- 5. 2 O-1G 항공기 도입(1972)
  항공의학연구원 의무사령부에서 공군으로 예속 복귀(1988)
- 5. 5 항공부대 창설(1948)
  C-46 항공기 도입(1955)
- 5. 6 UH-60 헬기 도입(1991)
- 5. 10 제3훈련비행단 창설(1968, 대구)
- 5. 14 T-6 항공기 도입 및 건국기 명명식(1950)
- 5. 23 북한공군 이철수 대위 MiG-19기로 귀순(1996, 수원)
- 5. 30 유치곤 대위 6·25전쟁 중 한국공군 최초로 200회 출격기록 수립(1953)

김애정 · 윤정 하사, 공군 최초 자매 동시 임관

우리 언니는 제 동기랍니다!

20년 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창규 원사(51) 주위로 김애정 · 윤정 자매가 쪼로록 달려나간다. 퇴근한 아빠가 마냥 반갑고 좋아서기도 했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아빠가 입은 공군 제복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다. 20년 뒤, 두 자매는 나란히 아버지와 같은 제복을 입은 공군 부사관이 된다. 더군다나 공군 최초로 두 자매가 한날 한시에 임관식을 맞이하면서 말이다.

"어릴 적부터 아빠 제복이 너무 좋았어요"

김애정(26) · 윤정(24) 하사의 아버지인 김창규 원사는 공군의 베테랑 정비사로서, 현재 제1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원사의 말에 따르면 두 김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김 원사의 제복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김 원사는 그런 딸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과 긍지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김 원사도 설마 두 딸이 모두 자신의 후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두 딸이 공군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동생인 김윤정 하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공군 부사관에 지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딸이 힘든 군인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평범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했던 김 원사는 이에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김윤정 하사는 잠시 꿈을 접은 채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반대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로

그러나 한번 품은 뜻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열정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집 밖에서 마주치는 푸른 제복의 공군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군 부사관이 되고 싶다는 김윤정

하사의 소망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윤정 하사의 소망은 반대했던 아버지를 든든한 후원자로 변화시키는 마술을 부렸다.

물론 김윤정 하사의 소망만으로는 그토록 완고했던 아버지의 뜻을 바꾸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지옥엽 같은 딸이 험한 훈련으로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김창규 원사는 딸의 부사관 지원을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이때 언니 김애정 하사가 동생과 같이 공군 부사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면서 든든한 동반자로 나섰고, 두 자매의 뜻 앞에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는 따뜻한 후원으로 바뀌었다. 자식이 스스로의 꿈을 이뤄 행복하길 바라는 것 또한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을 앞둔 김윤정 하사는 진로를 고민하던 끝에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군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고, 마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언니 김애정 하사도 동생과 같은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의 반대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두 김 하사는 치밀하게 작전을 계획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동 작전(?)을 펌으로써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김 원사도 두 딸의 뜻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로 돌아서게 되었다.

제192기 부사관 임관식

때로는 자매처럼, 때로는 동기처럼

아버지의 지원을 받은 두 자매는 제192기 공군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했고, 이후 14주의 기본군사훈련에 입과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맞부딪친 부사관 훈련과정은 고되고 힘들었다. 이 때 두 자매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격려. 두 자매는 때로는 자매로서, 때로는 동기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힘이 돼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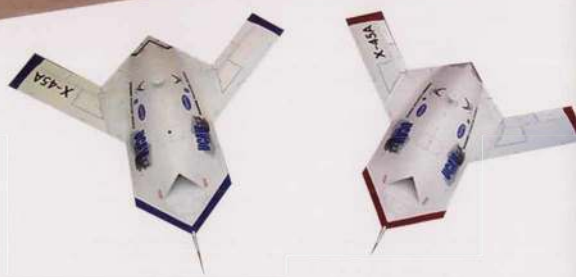
동생 김윤정 하사는 "집에 있을 때에도 언니가 항상 챙겨주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언니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버지의 자랑스런 딸이자 후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

마침내 고대하던 공군 부사관 임관식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되었다. 같은 제복을 입은 아버지와 두 자매의 모습.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아버지와 자매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빛났다. 김애정 · 윤정 하사는 "저희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믿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며 "아버지에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런 딸이자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원고정리 **편 집 실**

무인 전투기 X-45



조종사 없이 로봇과 컴퓨터로 조종하는 '무인전투기'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18일, 미국 항공업체 보잉은 로봇이 조종하는 무인기 X-45A의 폭탄 투하실험 성공을 언론에 발표했다.

X-45A는 이날 캘리포니아 사막 지대의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이륙, 고도 1만m, 시속 710km로 운항하다 폭탄을 투하했고, 폭탄은 목표물에 명중했다. 오차범위도 1m 이내였다. 이번 실험의 성공은 무인전투기의 실용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인전투기의 장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자. 공군에게 맡겨진 임무는 적 후방의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것. 하지만 이 임무는 만만치가 않다. 적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선 먼저 강력한 적의 대공망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 임무를 수행하게 될 조종사들의 적지 않은 희생이 예상된다. 명령을 내리는 쪽도, 명령을 받는 쪽도 마음이 무거워 진다…

무인전투기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폭탄과 연료만 싣고 나면 언제든지 적진 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작전 지역으로의 출격 준비가 완료된다.

무인전투기 X-45

주로 정찰 부문에서이긴 했지만, 지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효과를 톡톡히 본 미국은 최근 무인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잉社, 미 공군, 미 해군,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등이 무인전투항공기(UCAV)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무인전투항공시스템(UCAS : Unmanned Cabat Air System)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현재의 유인 전투기가 가진 성능을 뛰어넘는 무인항공기 양산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X-45가 있다.

특 징

X-45는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과 꼬리날개가 없는 동체가 특징이다. 동체하부 좌우 두 곳에 1,000파운드를 실을 수 있는 무기격실이 있어, 1,000파운드 JDAM은 2발, 소구경 폭탄(SDB)은 8발을 수용할 수 있다. 또, 각 날개

X-45는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과 꼬리날개가 없는 동체가 특징이다. 또한, X-45의 제조비용은 차세대 유인 전투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무인 전투기는 앞으로 수년 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아래에는 추가 무기나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는 장착점도 설치되어 있다. 기체 정면 가운데엔 조종석 대신 공기 흡입구가 달려 있으며, 꼬리날개가 없는 대신 상하좌우로 추력 방향을 편향할 수 있는 추력벡터노즐을 사용하고 있다.

유도와 통제

X-45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방식과 지상에서의 무선원격장치와의 변환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지난 4월 18일 실시된 실험에서 X-45는 사전에 프로그램 된 비행계획(GPS 정보, 비행경로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1명의 지상 운용자가 복수의 무인전투기를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1개 분대, 혹은 1개 편대를 개인이 조종할 수 있다)

향후 전망

컴퓨터 시스템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무인 전투기의 성능 개선과 실전배치 시기 단축은 가속이 붙고 있다. 또한, X-45의 제조비용은 F-35와 같은 차세대 유인 전투기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1,000 ~ 1,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해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빠른 속도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무인전투기 시장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잉은 미 공군에 2008년까지 10대에서 14대의 작전 가능한 A-45(무인공격기)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식 생산은 2006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지구접근천체
(NEO : Near-Earth Object)

지구에 대한 잠재적 위협, 지구접근천체

우주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소행성과 혜성들이 있다. 이들은 큰 행성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여 궤도가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궤도를 이탈하여 지구에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행성과 혜성들을 지구접근천체(NEO, Near-Earth Object)라고 부른다.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와 같은 재난 영화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이러한 지구접근천체에 대한 관측과 궤도계산을 통해 지구충돌 위험성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새로운 천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다른 행성의 영향으로 이들의 궤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NEO에 대한 관측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지름 1km급 이하의 NEO에 대한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설정이다.

실제로 NEO의 지구충돌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만약 지름 10km 이상의 NEO가 지구에 충돌할 경우 지구상 생명체는 전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극소의 확률과 극대의 피해' 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다.

NEO는 그 크기에 따라 피해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지름 1km 이상 급은 지구전체에 대한 피해를, 수백 미터 급은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름 50m 이하의 NEO는 지상에 충돌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폭발하여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정도의 큰 NEO가 지구표면에 충돌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대기권 진입과 동시에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여 대기의 온도상승 및 강력한 폭풍이 생겨나서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대기권을 지난 NEO가 바다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 피해가 극대화된다. 얼마전 동남아에 불어닥친 쓰나미(Tsunami)보다 훨씬 거대한 수십 미터 급 규모의 거대한 해일이 해안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중에서 생긴 화학반응에 의한 산성비나 전자기 교란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산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에서 국가별 면적과 인구 등을 기초로 수행한 NEO 충돌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10위권 내의 고 위협국가로 분류됐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높고 해안선이 길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NEO 충돌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EO 피해방지 노력과 미국의 딥 임팩트 프로젝트

최근 NEO의 지구충돌 피해방지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효율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NEO에 대한 관리(관측, 궤도분석, 추적 등)와 함께 NEO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NEO의 구성물질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딥 임팩트(Deep Impact) 무인 탐사선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혜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메릴랜드대 등의 연구진 250여 명이 1999년부터 착수하였으며, 태양주위를 5.5년의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템펠1' 혜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딥 임팩트는 발사 후 6개월 동안 4억 3,100만km를 비행한 후 플라이바이(fly-by) 탐사선을 템펠1 혜성에 접근시키고 이 탐사선에서 구리로 된 충돌체인 임팩터(Impactor)를 발사하여 얼음덩어리 템펠1 혜성에 시속 3만 7,000km로 충돌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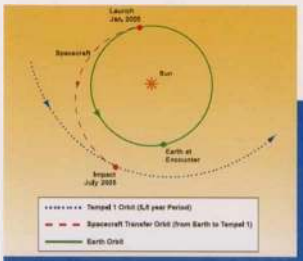
이 충돌로 혜성에는 거대한 구덩이(Crater)가 생겨날 것이며 이를 탐사선에서 관측하여 이 과정에서 생기는 방출 물질 등 각종 정보들을 지구로 전송할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혜성의 구성물질 등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풀릴 전망이다. 또한 이 충돌로 인해 혜성의 궤도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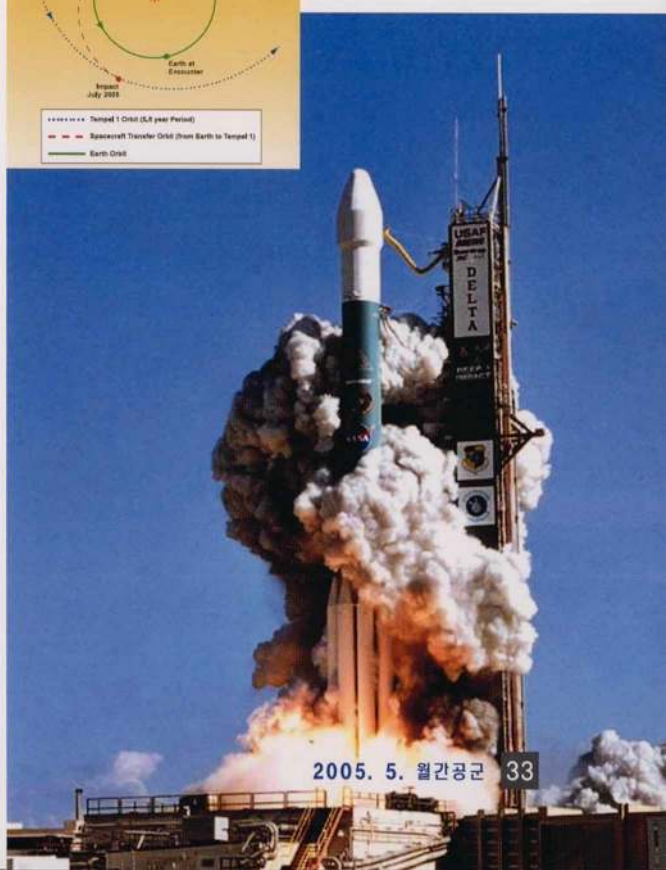
딥 임팩트의 템펠1 혜성 충돌은 오는 7월 4일 예정이며 지구에서 128만km 떨어진 곳에서 실시되는 이 충돌은 지상에서 소형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럽의 돈키호테 프로젝트

한편 유럽 우주국(ESA)에서는 소행성의 지구충돌에 대비해 이를 파괴하거나 충돌을 통해 진로를 바꾸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돈키호테(Don Quixote)'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히달고(Hidalgo)와 산초(Sancho) 두 대의 우주선을 2010~2015년 사이에 발사하여 소행성 충돌 후 발생한 궤도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담당





생활과 예술의 현재 진행형

예술 마을, 헤이리

임진강이 흐르는 경기도 파주는 휴전선 인근이라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대변하여 주는 지역으로 통일 안보 관광지로의 명성이 알려진 곳이다. 자유로를 따라 달리며 어렴풋이 느껴지는 따뜻한 봄 햇살에서 '이제는 휴전선 너머 북녘 땅에도 봄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걸 보면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은 통일 전망대도 그 유명한 판문점도 아니다. 과거의 흔적과 이미지들만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현장을 보러 가는 길이다.

예술인들의 마을 헤이리

저 멀리 임진강을 젖줄로 품고 있는 그곳의 마을 입구는 비록 아름드리 나무와 함께 흙냄새 배어 있는 예전 동구 밖의 풍경은 아니지만 커다랗게 쓰여진 마을 이름이 찾아온 손님을 정겹게 맞이하여 준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 전해져 오는 농요의 후렴구 '헤이리'에서 마을의 명칭을 따온 이곳, 예술마을 '헤이리'. 즐겁다, 신난다의 뉘앙스를 지닌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하니 어감이나 느낌에 있어서 영문 단어 'Hey'와 다르지 않은 듯하다. 지난 1997년 발족된 헤이리는 파주시 탄현면 15만평의 산자락에 작가, 미술인, 영

화인, 건축가, 음악인 등 370여 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만들고 있는 문화예술 마을이다. 이들이 거주하기 위한 집은 물론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예술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150여 채의 건물들이 들어설 이곳은 현재 60채 정도의 건물들이 완공되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마을 공동 조경도 2006년 상반기 즈음 마무리될 예정이라 마을 곳곳에서는 망치질 소리가 가득하다.

일상에서 느끼는 문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실천적 공간을 지향하는 이 곳은 각각의 건축물에서부터 간판과 조형물 하나 하나,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어 꾸며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저기 공사중인 현장 때문에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 이들은 '이게 뭔가?' 하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는 1년 내내 반들반들하게 바닥이 닦여진 놀이 동산이 아니라는 걸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단지, 마을 주민들이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터전이자 작업장인 이곳 역시 무언가 특별한 예술품처럼 세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다. 머릿속으로 그렸던 문화적인 정취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지라도, 마을 안을 거닐다 보면 사방에 퍼져 있는 독특한 모습의 건축물에서부터 작은 하천과 거리들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헤이리의 모든 것에 예술가의 숨결과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건 다소 억지스러운 생각일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예술이라는 게 일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개성 넘치는 건축물

입구에서 받아든 그림 지도를 펼쳐 들고 보물찾기를 하듯이 봄 햇살과 함께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건 애, 어른 구분할 것 없이 즐거운 경험일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관광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동네 한바퀴를 산책하는 기분으로 돌아본다면 좋을 것이다. 헤이리를 거닐다 보면 무엇보다 기이한 형태를 띤 건축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단순한 호기심을 떠나서 평범하지 않은 형태의 건물들에 대한 궁금증은 헤이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일 것이다.

하늘이 걸려 있는 정한숙 기념홀

MOA 갤러리

카메라타 음악 감상실

한향림 갤러리 야외정원

길 위의 외로움

북하우스 지하 갤러리

씨네 팰리스에서 발견한 '빨간 마후라' 포스터

이 곳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건축물들도 마을을 구성하는 한 조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축학도라면 헤이리에 가보아야 한다'는 건축학을 전공한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도, 이곳의 건축물들은 그 독특한 개성과 매력으로 방문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헤이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한향림 갤러리에서 뜰 앞에 가득 찬 질그릇과 옹기에서 느껴지는 전통적인 선의 아름다움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축물들의 독특한 형태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여유와 문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늪지 공원에 이르면 길 위의 보도 블럭에 아로새겨진 사랑, 기억, 외로움 등의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안규철 작가의 '지울 수 없는 60개의 단어'라는 작품으로 누구나 한번쯤 가슴 속에 품어 보았을 단어들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잊어버렸던 느낌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준다. 이 길을 매일 걷는 이곳 주민들도 어제는 '그리움', 오늘은 '행복'을 발견하면서 매번 다른 느낌으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각양 각색의 문화 시설들

영화, 음악, 책, 미술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는 스스로 예술의 문외한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무언가 문화의 향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월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획되며, 전시는 물론 공연과 강좌가 이 집, 저 집에서 항상 진행이 되고 있다. 따뜻한 차 한잔과 아름다운 음악이 그리운 사람이라면 아나운서 황인용 씨가 운영하는 카메라타 음악 감상실을 찾아가 따스한 선율에 빠져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라면 씨네 팰리스에 들러 로마의 휴일과 같은 고전 영화에서부터 해리포터, 스파이더맨과 같은 최신 영화들의 포스터와 자료들을 보는 것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초상화, 도자기, 사진,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특색을 지닌 갤러리들을 찾아다니며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이외에도 세계 60여개 국에서 수집한 450여점의 악기가 전시된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이나 아이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미술체험공간 '아트 팩토리'는 가족들이 예술은 어렵다는 부담감 없이 가볼 수 있는 공간이다. 책의 향기에 흠뻑 취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벽면 전체에 3천여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 북카페 '반디'에서 책을 읽으며 한가로운 오후와 함께 저녁 노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헤이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한 곳인 '북하우스'는 한길사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레스토랑, 전시관, 서점이 층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사선으로 긴 복도를 따라 이어진 서가는 일단 들어서면 빈손으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책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진다.

영원한 현재 진행형

앞으로 이곳이 우리에게 어떤 요리들을 선보이게 될지는 좀더 기다려야겠지만, 예술과 문화라는 싱싱한 재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곳에서 풍성한 상차림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조급해 하지 말자. 비록 예술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지닌 채 시작된 곳이지만, 지금도 진행형이고 세월의 흔적과 함께 하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진행형의 형태를 띤 하나의 마을이다. 정지된 공간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처럼 누군가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가는 그런 곳. 평범한 일상들로 가득찬 하루이지만 저 골목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내심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마을. 헤이리에서는 굳이 느림을 강조하지 않지만, 무언가 느껴볼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저절로 느려지는 자신의 발걸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30방공관제단 중위 **유 재 석**

한길 북하우스 입구

어머니,
그분의 자존심의 근거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첫 출전은 1998년 모 신문사의 춘천 마라톤 10km부문이었다. 무사히 들어오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다. 형진이가 결승라인에 들어 올 때도 나는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난 그저 떨고 있었다.

2000년, 춘천 마라톤에서는 형진이를 잘 알아보려고 빨간 티셔츠를 입혔다. '형진이가 다른길로 새지 않고 무사히 오게 해주세요. 빨리 빨간 티셔츠가 보이게 해주세요.' 끝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결승점으로 들어 온 사람이 겨우 두 세명 뿐인데 저 쪽에서 형진이의 빨간 티셔츠가 보인다. 열심히 연습하긴 했지만 선두로 들어올 줄이야...

결과는 전체 4등이었다. 일반인과 같이 시상대에 오를 때엔 가슴이 터질 듯이 감격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박미경氏의 수기 中〉

"만약 당신이 영화 말아톤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문 조사에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나 역시 아이와 함께 고통을 이겨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난 울지 않는다. 재산도, 지식도 없지만, 형진이가 건강한 것에 감사한다. 내가 가진 것은 단 하나, 내 아이를 키우며 당당하게 지켜온 자존심이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어머니의 자존심의 근거라는 사실을.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고소하겠다' 라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고소란 무엇이고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거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고발이 있는데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 점에서 고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고소의 방식

고소의 방식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사기관이라 함은 경찰, 검찰을 의미하고 만약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헌병이나 법무실에 고소를 해야 한다. 가끔 청와대나 장관 앞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렇게 하면 이 고소장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전달하게 되어 상당한 시일이 지연되는 등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만 들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특정할 수 있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므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 김○○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폭행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를 한 경우 법적 처리 절차

이렇게 고소를 하게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고소를 접수한 수사관서는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며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사(피고소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검찰관)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고소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소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고소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검사의 이러한 사건처리에 의해 고소사건이 일단락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고소의 주된 취지가 피고소인의 처벌에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소인을 기소하게 되면 고소인은 자신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된 것이지만 만약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자신이 고소를 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을 불기소했다고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검사에게 왜 불기소처분을 했는지 그 사유를 고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검찰관이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항고제도가 없는 대신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다.

허위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소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고소에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검사나 검찰관이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무고사범에 대한 적발을 하기도 한다.

제16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진) 김 제 성

현대인의 적, 변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건강의 조건으로, 3쾌를 들어 왔다. 즉, 잘 먹고(쾌식), 잘 자고(쾌면), 변을 잘 보아야(쾌변) 건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인구의 5~20% 정도가 변비를 경험하고, 10% 이상의 사람들이 변비약을 먹거나 관장을 실시한다는 통계 수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쾌변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발효요구르트 시장을 통해, 현대인들의 쾌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심하면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져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변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비란?

변비는 사람마다 호소하는 증상들이 다양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만족스럽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통 정상배변의 기준이 하루 3회 이하, 주 3회 이상이므로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변을 보는 경우 변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배변횟수는 정상이지만, 변을 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하거나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잔변감이 남아 있는 경우, 배변시 항문이 막혀 있는 느낌이 자주 있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변비에 포함된다.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 중 주요한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대변이 형성되기 힘들 정도로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이다. 대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이 변비를 호소하면 이러한 이유에 의한 변비가 많다. 둘째, 과민성대장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복통이 동반되다가, 배변 후 복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장항문의 배변에 작용하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종양이나 장폐색 등의 기질적 이상, 또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의 대상성 이상에 의한 변비환자도 있다.

다음은 변비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을 정리한 표이다.

변비가 걸리기 쉬운 조건, 또는 변비를 악화시키는 요인

1. 고령, 여자
2.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3. 약제 복용 여부
4. 정신과적 상황(우울증 등)
5. 식이적 요인(저섬유식, 고칼슘식)
6. 제한된 신체적 활동(운동부족)
7. 전신 질환(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장폐색 등)

변비의 치료

변비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요법이 아니라 식이요법으로, 충분한 섬유질과 물의 섭취(하루 2리터 이상)가 바로 그것이다. 섬유식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지만, 1~2주 지나면 대부분 적응하게 된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다음과 같다.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한 음식

1. 곡류 : 보리, 현미, 율무
2.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3. 두류 : 콩, 팥, 완두콩, 청국장, 비지
4. 채소류 : 배추, 시금치, 무, 상추, 옥수수, 당근, 고사리, 감자, 고구마, 연근
5. 과일류 : 밀감, 수박, 배, 곶감
6. 종실류 : 참깨, 땅콩, 호두

적당한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역시 변비치료에 좋다. 또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과 식사에 의해 장운동이 증가하는 점을 이용해 아침식사나 저녁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도록 하는 등의 올바른 배변습관을 병행하면 변비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시행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유의할 점은 약물의 효과가 좋다고 하여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요구량이 많아지고 약물에 의존하는 습관성이 높아지며 후에 심각한 장손상을 일으켜 장절제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약물요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도록 하자.

또한, 요즈음 변비 치료로 각광받는 방법으로 바이오피드백(행동요법)이 있다. 이는 항문에 전극을 삽입하여 배변에 작용하는 항문 주변 근육들의 움직임을 기록, 이를 모니터 화면에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항문근육의 이완 수축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근육운동을 유도, 배변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변비 환자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식이(食餌)습관, 운동량을 점검해 보고, 올바른 배변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적절하게 약물요법이나 바이오피드백을 시행한다면 변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모든 공군인들이 항상 '쾌변'의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란다.

제3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 지 호**

수화(水花)

방공포병학교 수화(手話)동아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이 시간만 되면 방공포병학교 수화동아리 회원들 사이엔 어김없이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바쁘기만 하다. 스스럼없이 마주치는 눈빛과 의미를 전하는 손짓. 동아리 회원들 사이의 '열띤 침묵'은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진다.

회원들간의 대화를 오직 수화로만 하고 있는 방공포병학교 수화동아리 '수화(水花)'. '수화'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타파하고 장병들에게 수화를 전파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창설되었다. 창설과 함께 '수화기초반'을 개설, 작년에 이미 제1기 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대구 농아인 협회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제2기 수화기초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화(手話)동아리
『수화(水花)』

방공포병학교 수화(手話)동아리의 이름은 '수화(水花)'이다. 동아리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물보라가 일 듯 모든 사람을 감싸 안을 줄 알고(水), 꽃의 향기처럼 기분 좋고 즐겁게(花)' 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동아리 활동은 언제나 밝고 즐거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수화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조심조심… 서툴고 느리지만 정성스런 손동작들이 오갑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한 마디 한 마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다사로운 눈빛이 흐릅니다."

활발한 대 · 내외 활동

'수화(水花)'는 지난해 말 대구 농아인협회 주

최로 열린 '제6회 대구 수화 경연대회'에 군인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출전,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3월에 참가한 '대구 수화발표회'에서도 신생동아리 답지 않은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얼마전 부대에서 실시한 '모범장병 부모 초청행사'의 동아리 발표회에서는 재미있는 구성과 율동으로 학교장을 비롯한 장병 및 부모님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새로운 친구 만들기'

'수화'는 자체 세미나 등을 통해 수화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는 동아리 창설취지에 부합하도록 어려움을 함께 하고 수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앞장서겠다는 것. 동아리 반장 정은용 상사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업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동시통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활동들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청각장애인에게나 우리 동아리 회원들에게나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수화, 손과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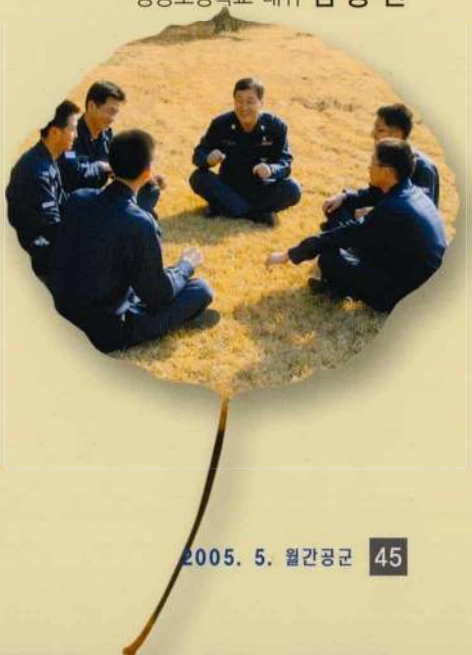
현재, 동아리 반장인 정 상사를 비롯하여 수화동아리 대부분의 회원들은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수화 동시통역 능력'을 도달목표로 잡고 있다.

신규회원으로 제2기 수화기초반에 참가하고 있는 엄재민 이병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청각장애인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느리고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서로에게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대화'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는 수화를 배운 기간이 짧아 간단한 대화밖에 할 수 없었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다. 청각장애인이나 수화는 아직 '일반인과 상관이 없는 특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동등한 인격체로서 마주하고 대화하길 원한다.

"수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숙달을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간단한 인사말이나 관용표현 정도는 언제라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수화로도 얘기해 보세요. 그게 바로 '관심'입니다."

방공포병학교 대위 김 종 민



스무살 이등병

벚꽃이 만발하는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5월은 항상 웬지 모를 설렘이 느껴지는 달이었다. 특히 **'성년의 날'**은 일생에 한 번뿐인 날로, 사춘기 시절부터 **'스무살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기다려오던 그런 날이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그 날이 결국 오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너무나 궁금했던 스무살의 내 모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공군 이등병"**이다.

사회에 있었다면 기껏해야 장미 스무 송이와 향수(예쁜 여자친구의 달콤한 키스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로 끝났을 그런 날이지만, 군대에서 맞이하는 성년의 날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나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다. 솔직히 군에 올 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군에서 성년을 맞이하고 보니, '국방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내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나도 꽤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나는 군에서 다음의 것들을 꼭 배워나갈 작정이다.

첫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새롭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동기들과의 전우애, 상급자에 대한 예의와 충성심, 하급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군대만큼 적합한 곳도 없을 것이다.

둘째, **건강한 신체를 만들 것이다.** 사실 내 평생에 지금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해 본적이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에 시달려서, 대학교 입학 후에는 해방감에 들떠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평생 지닐 수 있도록 모든 일과와 업무에 최선

군대는 보물섬이다.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느냐 마느냐, 또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2년 3개월 후…
이 보물섬에서 가장 많은 보물을 짊어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성숙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해 본다.

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구보든, 축구든, 농구든 모든 운동을 열심히 즐겁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규칙적인 생활인만큼 나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자기 개발의 시간도 달라질 것이다. 우선 이등병으로서 부대에서의 업무 숙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겠지만, 일과 후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독서도 많이 하고, 어학 공부도 하고 싶다.

초보군인이 군대에 와서 초보 어른이 되었지만, 이런 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동안, 능숙한 군인, 그리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본 VTR 교재에서 **'군대는 보물섬'**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 정말 그렇다.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느냐 마느냐, 또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2년 3개월 후… 이 보물섬에서 가장 많은 보물을 짊어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성숙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해 본다.

제17전투비행단 이병 **차 재 훈**

영어 파파라치 가 되자

"영화가 당신한텐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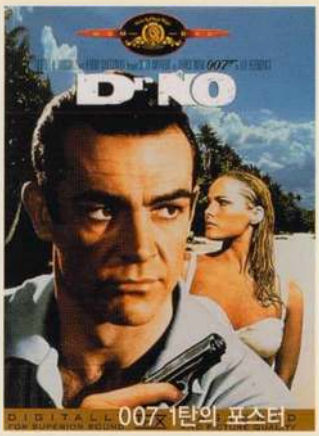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인터뷰 때마다 어떤 영화와 배우를 좋아하느냐는 질문도 즐겨 받지요. 저에게 영화의 세계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는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만남의 대상은 영화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담아놓고 싶은 명대사일수도 있으며 배우가 맡은 극중의 캐릭터일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영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관객에게 영화관은 즐거운 영어수업이 기다리는 교실도 되겠지요. 이걸 모두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다음처럼 될까요? '새로운 소재와 감동적인 스토리,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내 친구로 삼고 싶은 영화속 멋진 캐릭터, 그리고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영어표현들이 꽉 찬 영화이면서 보고 나서 또 보고 싶어지는 영화!' 저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지면을 통해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명대사, 유익하고 싱싱한 영어표현들,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상식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의 영어공부에 보탬이 되는 쪽에 더 비중을 둘 계획이고요.

일도 공부도 즐기면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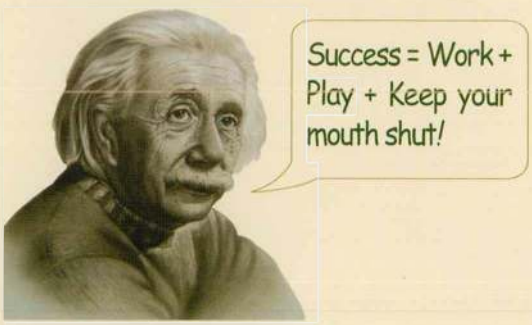
'영어공부' 에 느낌표를 콕 찍고 나니까 미리부터 부담을 느끼는 독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어공부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놀이나 유희라고 생각하면 영어공부가 한층 재미있고 즐거워질 겁니다.

영국해군의 정보장교 출신인 이안 플레밍(Ian Fleming)은 해군을 떠난 뒤 첩보소설 작가가 될 결심을 하고는 007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멋진 주인공 캐릭터도 탄생시켰습니다. 정작 007의 이름을 작명하지 못해 고심하던 그는 우연히 서점에서 어떤 책 저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임스 본드(James Bond)였던 것입니다. 007과 007가방과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히딩크 감독은 어디를 가든 항상 두 개의 007가방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007 1탄의 포스터

하나엔 선수들의 신상기록이나 작전술이 들어있었고 나머지 하나엔 놀랍게도 100장이 넘는 재즈 CD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일과 휴식을 함께 즐겼던 것이지요. 아인슈타인도 'Success = Work + Play + Keep your mouth shut!' 라는 등식을 만들어서 '함께 즐기는 일과 놀이' 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요. Keep your mouth shut. '세 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는 뜻인 거, 잘 아시죠?



Dreams can begin small

영화와 놀면서 영어공부를 하되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더 주의할 점은 '허리 병'이긴 하지만요. 영어공부와 '허리 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제가 만든 '허리 병'이란 용어는 'hurry sickness' 즉, '조급증'을 뜻합니다. 언어라는 요리는 절대 단기간에 허겁지겁 삼킨다고 해서 그게 다 곧바로 피와 살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큰 꿈을 갖되 길게 보고 마라톤 하는 기분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무릇 모든 큰 꿈도 다 작은 꿈들이 이루어지면서 큰 꿈으로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뜻을 담은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샤크 : Shark Tale〉에서 르네 젤위거가 했던 대사인데요, 영어로는 Dreams can begin small.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하고 쌓으면 행운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The Incredibles〉에서 슈퍼히어로의 특수의상을 만드는 전문가인 에드나 모드가 하는 명대사, 즉 Luck favors the prepared.와 같은 뜻이군요. 여기서 favor는 '더 좋아하다'의 뜻을 가진 prefer와 바꾸어 써도 되겠지요?

영화를 좋아하면서 영어마저 달콤해지는 그런 '달콤한 인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김지운 감독이 만든 〈달콤한 인생〉을 봤는데요, 문득 동명 타이틀의 이탈리아 영화가 떠오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 하나가 생각나더군요. 1960에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만든 〈La Dolce Vita〉도 제목의 뜻이 'the sweet life'인데요, 이병헌이 맡은 암흑조직의 킬러와는 달리 펠리니 영화의 주인공은 바람둥이 저널리스트입니다. "아-하!" 하시겠지만 그 기자를 따라다니는 사진작가의 이름이 바로 Paparazzo입니다. 그 이름을 빗대서 탄생한 용어가 파파라치(paparazzi)이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 용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English Paparazzi, 즉 영어를 잘하기 위해 영어공부에 파고드는 학구파 파파라치로 말이지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리우드 영화와 가까워지면서 영어 파파라치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선생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준비됐죠? 그럼 다음 호 월간 『공군』에서 또 만나요. "I'll be back!"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저자

5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에버랜드「유로 페스티벌」

롯데월드「새 봄 생태체험전」

서울랜드「헤라리 메가 매직 쇼」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날씨도 완연한 봄기운을 가득 담고 있고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가득한 놀이 공원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만만세 대잔치』를 개최한다. 5월 한달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동화속 주인공인 엄지공주, 피터팬 등으로 분장하고, 직접 퍼레이드 연기자가 되어보는 "동화나라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살아있는 파충류 · 양서류 · 곤충 등 70여종 1만여 마리의 동물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새 봄 생태 체험전", 스페인 최고의 봄 축제인 "세비야 축제" 등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유로 페스티벌(EURO FESTIVAL)』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하루에 떠나는 유럽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6월 12일까지 총 8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유럽 15개국의 축제를 직접 벤치마킹 했다. 영국의 왕실 마차, 유럽의 고성(古城), 아치 형태의 꽃 터널 등 이국적이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유혹한다.

대전 꿈돌이 랜드에서도 "동화나라 환타지쇼", "나비방사 체험", "생태체험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봄을 맞아 개최되는 "나비방사 체험"에서는 여러 가지 나비들이 애벌레→번데기→성충이 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에겐 색다른 체험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랜드에서는 세계적인 마술사 헤라리의 마술쇼가 펼쳐진다. "메가 매직 쇼(Mega Magic Show)"라고 명명된 이 공연은 그 이름처럼 웅장하고 놀라운 10개의 일루젼 매직(공중부양, 인체분리 · 절단, 탈출마술, 대형 건축물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 등)이 주축을 이룬다. 이번 공연은 6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중 함께 펼쳐지는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도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대구의 우방타워랜드 역시, 봄과 5월을 맞아 튤립 팡파르, 치어리더 및 마칭밴드 공연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놀이공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펼쳐진다. 가족과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봄소풍. 당신의 선택은 어디인가?

롯데월드: www.lotteworld.com
서울랜드: www.seoulland.co.kr
에버랜드: www.everland.com
대전 꿈돌이랜드: www.kumdori.co.kr
대구 우방타워랜드: www.woobangland.co.kr

2005 신비한 인체, 한국특별전

우리의 신체내부를 직접, 그것도 모형이 아닌 실제로 볼 수 있다면? 학창시절 과학책을 통해서 기껏해야 과학실 인체모형을 통해서나 보던 인체 내부. 이것을 실제 사람의 몸을 통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다. "2005 신비한 인체, 한국특별전"이 바로 그것.

물론 일반적인 수술이나 해부에서 연상되는, 피가 철철 흐르는 전시는 아니니 안심하기 바란다. 현재 전시 중인 인체는 1978년도에 탄생한 프라스티나이제이션이라는 기법에 의해 특수 제작된 것으로, 혈액 없이 플라스틱처럼 굳어 있는 신체를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2005 신비한 인체, 한국특별전"에서는 16점의 전신 표본과 160여 점의 장기 표본이 소개되고 있다. 소화계통, 신경계통, 순환계통 등 인체를 기능별로 전시했으며 관람객들이 인체의 뇌와 간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다.

비교 전시되어 있는 건강한 장기와 질병에 걸린 장기를 통해선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태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선 경이로운 생명 탄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2월 26일까지 어린이대공원 특별전시관에서
입장료 : 성인 9,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
문의 : 02-452-2214(www.bodykorea.net)

객원기자 **지 인 홍**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또 늦었다. 핸드폰 시계를 들여다보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약속 장소까지 무조건 전력 질주다. 잠깐의 게으름 덕에 내 다리는 팔자에 없는 체력장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약속 시간에 이 삼십 분씩 꼭 늦는다.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 탓인지 공사를 막론하고 만나자는 사람도 부쩍 늘었는데, 나는 꼭 별일 없이 그저 노닥거리다가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기고, 기다리다 지쳐서 맘이 상해버린 상대방 앞에 어수선한 모습으로 허둥지둥 나타나는 게으름쟁이 병이 생겨버린 것이다.

시계 고장, 때아닌 복통, 또는 두통, 교통 체증, 한술 더 떠서 교통사고?

지각에 함께 따라붙는 클래식한 레퍼토리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아니다. 이런 종류의 변명 거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어 버렸다.

혹시 이런 궤변은 통하려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도 있지 않느냐?

안 되겠다. 아예 뻔뻔하게 나가 보기로 한다.

우리가 어떤 사인데!

너와 나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얼마전 개봉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너무 늦게 찾아온 만남과 진득한 기다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6살 어린 아들 유우지와 몸이 온전치 못한(기름이 잘 돌지 않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란다.-_-)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던 엄마가 죽기 전의 약속처럼 1년 후 비의 계절에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살아서 돌아온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그렇듯, 갑자기 찾아온 만남에는 예고된 이별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비의 계절이 끝나면 다시 망자들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엄마!

살아 생전 아내를 한번도 행복하게 해 준 적 없다는 아빠의 늦은 후회와 엄마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꼬마 아들의 마음의 짐을 모두 덜어내 준 엄마의 환생… 그건 어쩌면 너무 일찍 떠나버린 엄마를 향한 두 부자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도 모른다. 일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재혼이라도 했다면 어쩔뻔했는가! 휴~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너와 내가 아는 사이가 되어 만날 약속을 정하고, 함께 정한 시점과 장소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실현되기 불과 몇 분을 남겨두고 있다. 역사적인 순간이란 말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구태의연한 관용구는 쓸 필요도 없다.

영화배우 이병헌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너와 나의 생의 시간이 겹쳐지는 이 신비롭고도 불가해한 인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더랬다.

이 지구상 어딘가에 바늘 하나를 꽂아두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는 밀씨를 떨어뜨린다고 하자.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지면서 바늘에 꽂힐
확률…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확률로
우리가 만난 거다.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이 곳!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동네… 등등
이것을 바로 인연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라!

몇 십분 혼자 기다린 시간의 낭비에 대해 화내면서 성급한 마음으로 상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등을 돌려 나가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메커니즘이 미리 예정해놓은 멋진 만남을 망쳐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긴 인생의 시계에서 몇 십분 정도는 순간처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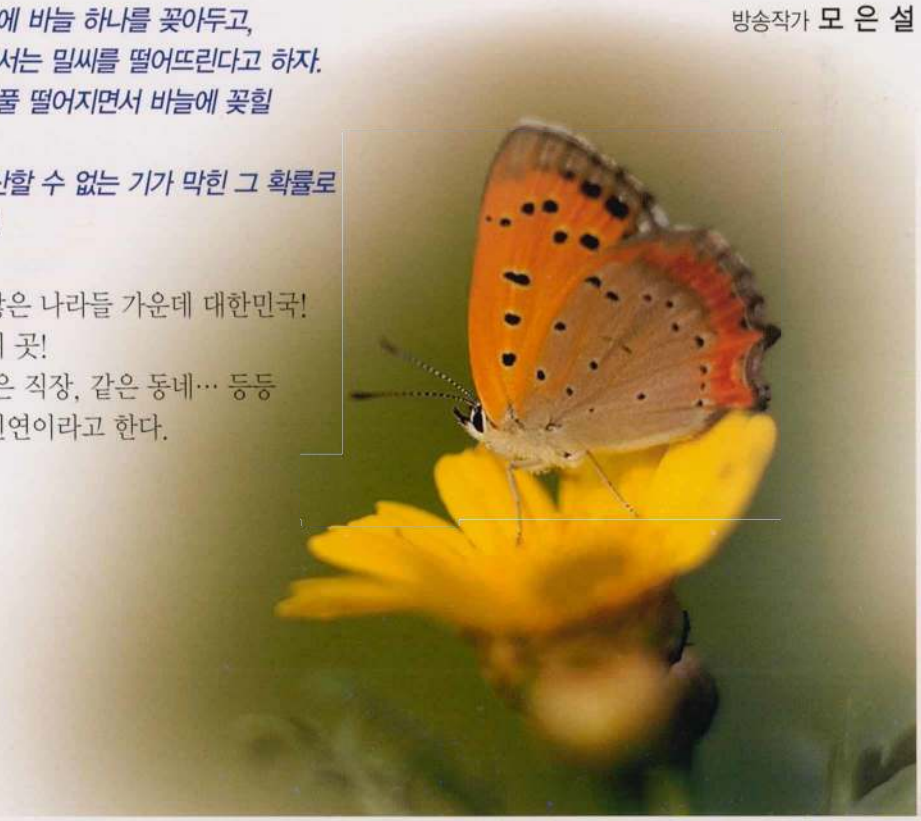
따뜻한 봄 햇살, 살랑살랑 불어오는 꽃향기, 다시는 못올 지금 이 순간… 봄날의 기분 좋은 만남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십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눈썹을 휘날리며… 봄처럼 맑은 얼굴의 당신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방송작가 **모 은 설**



주먹이 운다

왕년의 아시안게임 복싱 은메달리스트 강태식은 사업이 쫄딱 망한 후 거리로 나선다. 타고난 맷집으로 먹고살 아이템은 돈 받고 매를 맞아주는 일뿐이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 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가 창피하다 한다. 강태식은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하며 주먹이 운다. 한편 왕년의 '생양아치' 유상환은 돈 많은 일수 노인네의 지갑을 빼앗다 교도소에 갇힌다. 타고난 성질머리로 자력갱생의 희망을 키울 곳은 사각의 링뿐이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비명에 가시고 할머니는 과로로 쓰러져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 유상환은 저주받은 운명을 원망하며 주먹이 운다. 마침내 벼랑 끝에 내몰린 못난 주먹들이 신인왕전 결승에서 만나고 기어이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고야 만다.

류승완 감독의 성장과 변신

류승완 감독은 실존 인물을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영화를 구상했다. 각각 일본과 한국의 입지전적 복서들을 모델로 한 두 주인공은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다. 강태식과 유상환은 딱 한 번 라스트신 경기 장면에서 만난다. 그때까지 영화는 강태식과 유상환의 파란만장 인생사를 공평하게 반반씩 교차 편집으로 보여 준다. 앞선 작품들에서 주로 '어떻게' 싸우는가에 초점을 맞춰 찍은 류승완 감독이 이번엔 '왜' 싸우는가에 초점을 맞춰 영화를 찍었다. 스타일보다 드라마가 우선이다. 연출보다 연기가 우선이다. 이전과 달리 즉석에서 콘티를 수정하거나 영화 분량 대부분을 핸드헬드 방식으로 촬영한 것도 배우들의 순간적인 정서와 연기 변화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다.

감독 류승완은 사실 다소 과대평가된 감독이었다. 그는 세 편의 16mm 단편을 이어 붙인 저예산 장편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완성했고 그 이후 줄곧 재능 있는 감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데뷔작 이후에 연출한 두 편의 영화인 〈피도 눈물도 없이〉, 〈아라한 장풍대작전〉은 그의 재능이 만개하기를 기대했던 이들에겐 실망을 안겨 주었다. 10대들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패싸움이 인상적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대중들에게 만족스럽게 소비된 액션영화도 아니었고 딱히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작품도 아니었다. 단지 '독립영화'에서 '상업 영화'로 전례 없이, 그리고 기적적으로 변신한 작품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먹이 운다〉는 류승완이 마이너리그 특급 유망주에서 어엿한 메이저리그 멤버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허술하고 불안하게 유지돼 온 류승완의 세계가 완결성을 얻고, 그가 이제 비로소 관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문법 체계를 확립했음을 알리는 작품이다.

〈주먹이 운다〉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류승완이 대중문화 소비자로서의 감수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인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응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류승완은 처음으로 이 영화에서 가슴을 열고 관객들에게 대화를 청한다. 이전의 작품들에서 그는 자신이 예전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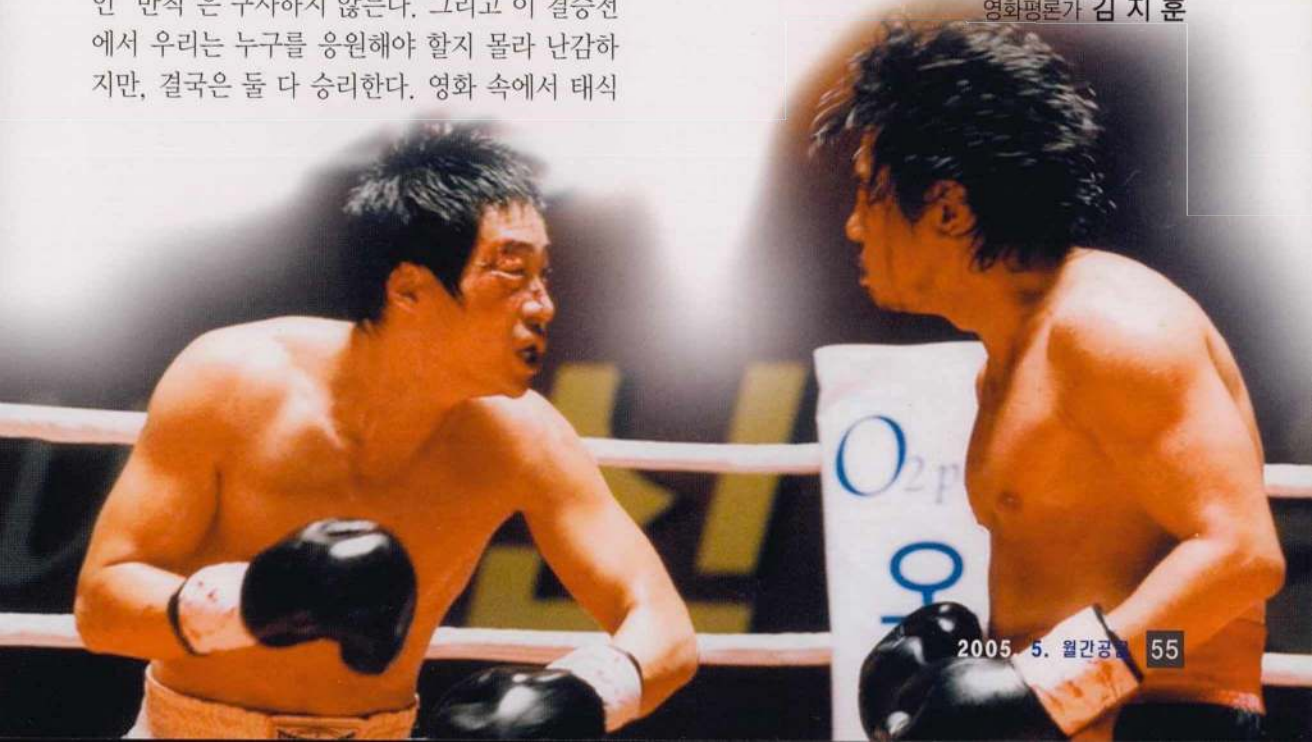
화 속에서 봤던 장면이 훌륭하지 않느냐고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영화광으로서의 자신을 과시했지만, 이 영화에서 그러한 문화 소비자로서의 자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는 관객들로 하여금 밑바닥까지 내려간 두 인물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이처럼 류승완이 관객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그가 너무 순순히 장르의 문법에 투항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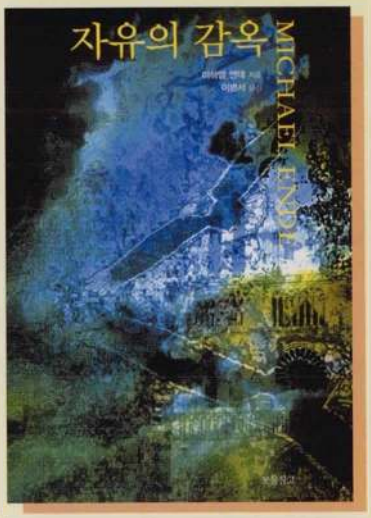
두 주인공, 사각의 링에서 만나다

그런데 영화가 후반부에 이르도록 두 주인공은 만나지 않고, 관객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감지하게 된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두 주인공이 '불행하게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맞붙게 된다. 영화 내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두 주인공이 태연하게 서로를 모른다는 듯이 결승에서 맞붙는 장면은 심지어 코믹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감동적인 한·일 축구 경기가 아니라, 올림픽 탁구 결승 경기에서 한국 선수 두 명이 맞붙는 상황이다. 관객들로서는 어쨌든 절반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하는 게임인 것이다. 기민하게도 아군과 적을 명확하게 구분해 응원단을 몰아주는 관습적인 '반칙'은 구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결승전에서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지만, 결국은 둘 다 승리한다. 영화 속에서 태식과 상환은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둘 다 반칙을 할 줄 몰라 인생에서 실패한 캐릭터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룰이 지켜지는 링 위에서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고, 심지어 감독도 반칙 없이 해피엔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는 가족을 해체시키며 관객들을 자극하고, 이어 가족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인력(引力)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낸다. 태식은 가장으로서 실패한 아버지이고, 상환은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자식이었다. 소년원에서 잠시 외출한 상환은 할머니가 몸져누운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할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옆에서 간병인이 "외국으로 가서 크게 성공했다고 할머니가 자랑하던 손자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은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다. 그리고 여기서 신인왕전은 보다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들은 어쩌면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뒤늦게나마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쏟아 붓는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류승완의 영화에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에 관한 언급을 무의식 중에 피해가기 위해 상상과 액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는 추측마저 가능케 하는데, 이 영화는 이처럼 가족주의를 정면으로 응시하여 삶의 내밀한 감정을 들춰내는데 성공하였다.

영화평론가 **김 지 훈**





자유의 감옥

- 미하엘 엔데 지음 -

누구나 어릴 땐 환상의 성이나 마법 자동차 같은 현실세계에선 있을 법할 것 같지도 않은 물건들을 상상하곤, 혹은 그런 것들의 존재들과 유희를 즐기곤 한다. 1970년 출간된 소설 〈모모〉로 전세계의 어린이, 그리고 여전히 앳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어른들에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환상문학의 귀재 미하엘 엔데. 그는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엉뚱하고도 신비로운 상상력을 인생의 황혼 녘까지 가져간 작가다.

저자, 미하엘 엔데의 『상상예찬』

그의 작품 중 또 하나의 대표작 〈네버엔딩 스토리〉가 명장 볼프강 페테르젠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되어 전세계적인 흥행성공을 했을 때도, "영상화됨으로써, 상상의 여지가 없어졌다." 라며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였으니 인간의 상상력 대한 그의 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자유의 감옥' 은 총 8개의 중단편으로 이루어진 소설집으로서, 〈자유의 감옥〉을 포함해 〈긴 여행의 목표〉, 〈여행가 막스 무토의 비망록〉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선정한 '4월의 읽을 만한 책' 이기도 한 이 소설집은 판타지 세계에 대한 작가의 뛰어난 묘사로서도 큰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순들과 판타지 세계를 절묘하게 엮어내 잠언과도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판타지적 상황 속에 묘사된 인간 내면의 진실

이 책의 표제이기도 한 〈자유의 감옥〉은 악령의 시험에 든 한 남자가 111개의 문이 달린 어떤 공간에서 단 하나의 문을 선택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유의 감옥이라는 아이러니한 제목에서 드러나듯, 남자는 무수히 많은 갈림길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하나 선택하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된다. 황당하고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는 하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완벽한 은유가 아닌가? 매 순간 순간마다 111개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많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 앞엔 무엇이 있을까 걱정하며, 문고리를 잡는 행위를 인간은 그가 살아온 세월만큼 행하게 된다. 미하엘 엔데가 환상문학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처럼 환상을 통해 인간 내면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아쉽게도 미하일 엔데는 1995년에 사망했으며, 이 책은 미하엘 엔데 사망 10주기를 기념하여 재발간된 것이다. 작가의 생애가 녹아있는 유작이면서도 부담 없는 중단편집이니 공원벤치에서 가벼운 봄바람이라도 즐기며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싱그러운 5월의 햇살 아래에서

**따스한 햇살, 싱그러운 풀피리소리, 훈풍에 실려오는 꽃내음….
솟아나는 생명과 새로운 소망이 어우러진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다.
산은 온통 푸르름으로 채색되고, 들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난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에 주의

5월은 주로 따뜻하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진다. 기온은 월평균 16~19℃로, 하순경에는 기온이 올라가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강수량은 70~110mm로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지만 대체로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안개발생도 빈번해진다

한편, 대기가 안정되면서 내륙지방에서는 짙은 안개가, 서해안에서는 해무(海霧)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매 항공작전시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순경에는 국지적인 호우나 돌풍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또한, 행락(行樂)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각종 안전사고예방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절기로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입하(立夏)가 5일이며, 본격적으로 농사철로 접어들고 보리가 익어간다는 소만(小滿)이 21일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온 대지가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달이다. 입하에 이르면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한다. 아카시아, 라일락 향기가 사위를 채우고, 짙어지는 녹음은 여름을 향해 달린다.

또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각종 행사로 마음 들뜨기 쉬운 5월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군인 모두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

제73기상전대 대령 염 영 경

독자의 소리

저희 부대에 관한 글인 『Zoom In - 공군을 만드는 사람들, 제91항공시설전대』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Fighting Air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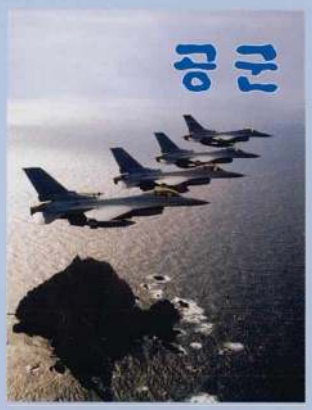
충북 충주시 금가면 황상영

『동아리 마당』 코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군 생활에 힘이 되는 동아리 소식이 참 읽기 좋았습니다.

늘 알찬 정보를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독하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강병권

이번 호에 소개된 F-15K 1호기 출고식 기사를 읽으며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서울 에어쇼에



공개될 F-15K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 됩니다.

월간『공군』 편집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김형

『F-15K 세상 속으로』 기사를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평소에 F-15K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달 월간『공군』 때문에 공군이면서도 모르는 면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이진철

『I Love Air Force - 영원한 곰신, 소설가 노은의 공군사랑』을 읽다보니 가슴 한 구석이 찡~해 왔습니다. 터미널에서 어머니와 전화를 했었던 그 기억, 그 때 그 각오들. 지금 말년병장이 되어 잊고 있던 그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했고, 그간 이병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전태열

월간『공군』. 군 생활을 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보았는데 저에게 있어 작지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내용들 부탁드립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송우근

매달 이렇게 다양한 기사 만드시느라 힘드시죠? 그 덕분에 제 한달이 즐겁습니다. 월간『공군』 만드시는 여러분들, 감사해요!

전남 해남군 삼산면 이예순

이번 호 편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었고 다음 호도 지금과 변함없이 알찬 내용과 좋은 정보로 편집하셔서 독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호도 열심히! 수고하세요^^

충북 충주시 금가면 이승표

2005. 5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효)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61쪽에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5. 5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예선대회 군악공연 모습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신경진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이예순
- 전남 여수시 학동 양이준
- 대전시 서구 관저동 정지은
-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정희정
- 대구시 북구 노원3가 조남현
- 충북 충주시 금가면 황상영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전경남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손정환
- 전남 여수시 여서동 양승주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5월 20일까지

영혼 정비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 정 훈**

얼마 전 국방부 출입기자 일행을 안내하여 ○○기지를 방문했었다. 기자들은 우리 공군의 영공방위의 최일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신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1969년에 미국의 군사원조와 국민의 방위성금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F-4D 팬텀(Phantom) 전폭기를 201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팬텀을 운영하는 나라

팬텀은 기골보강 등을 통해 당초 설계수명인 4천 시간을 배 이상 넘긴 9,600시간으로 조정, 앞으로도 5년을 더 운영하게 된다. 전폭기 조종사들의 평균 연령보다 항공기의 평균 기령(機齡)이 훨씬 더 많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이로 따지면 큰 형님이나 삼촌뻘 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셈이다. F-4D는 맥도널사가 1958년 첫 제작한 F-4 제트 전투기 시리즈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F-4 운영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팬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군들은 팬텀이 비행하는 것을 보면 기념촬영하기 바쁘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비행기, 혹은 간혹 표적기로 사용되는 항공기가 실제 작전임무를 수행하니 신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F-4D와 개량형인 F-4E는 아직도 우리 공군의 중요 전력으로 영공을 지키고 있다.

이날 전투비행단장은 "안전이나 성능, 부품 획득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완벽한 정비로 여전히 주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예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공군의 아픔이다"라고 솔직하게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 날 정비창을 견학하면서 단장의 설명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생산이 중단된 팬텀의 일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리창에서 직접 깎아서 제작하고 있는 현장을 본 것이다.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항공기 부품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정비요원들의 자신감과 기술수준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항공기 정비에 영혼을 담아

그러면서 비행단장은 지난 3월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들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항자대 간부들은 노후 항공기의 정비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항자대 작전부장은 한국 공군의 정비사에게 "노후 항공기가 사고 없이 운영되는 정비 노하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비를 담당하는 상사는 "규정과 원칙, 풍부한 경험을 갖고 정비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담아서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말을 듣자 항자대 간부들은 정비사의 장인정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말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21세기 첨단 우주 과학 시대에 "영혼"으로 정비한다는 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당당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 · 소설 · 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ksh0450@af.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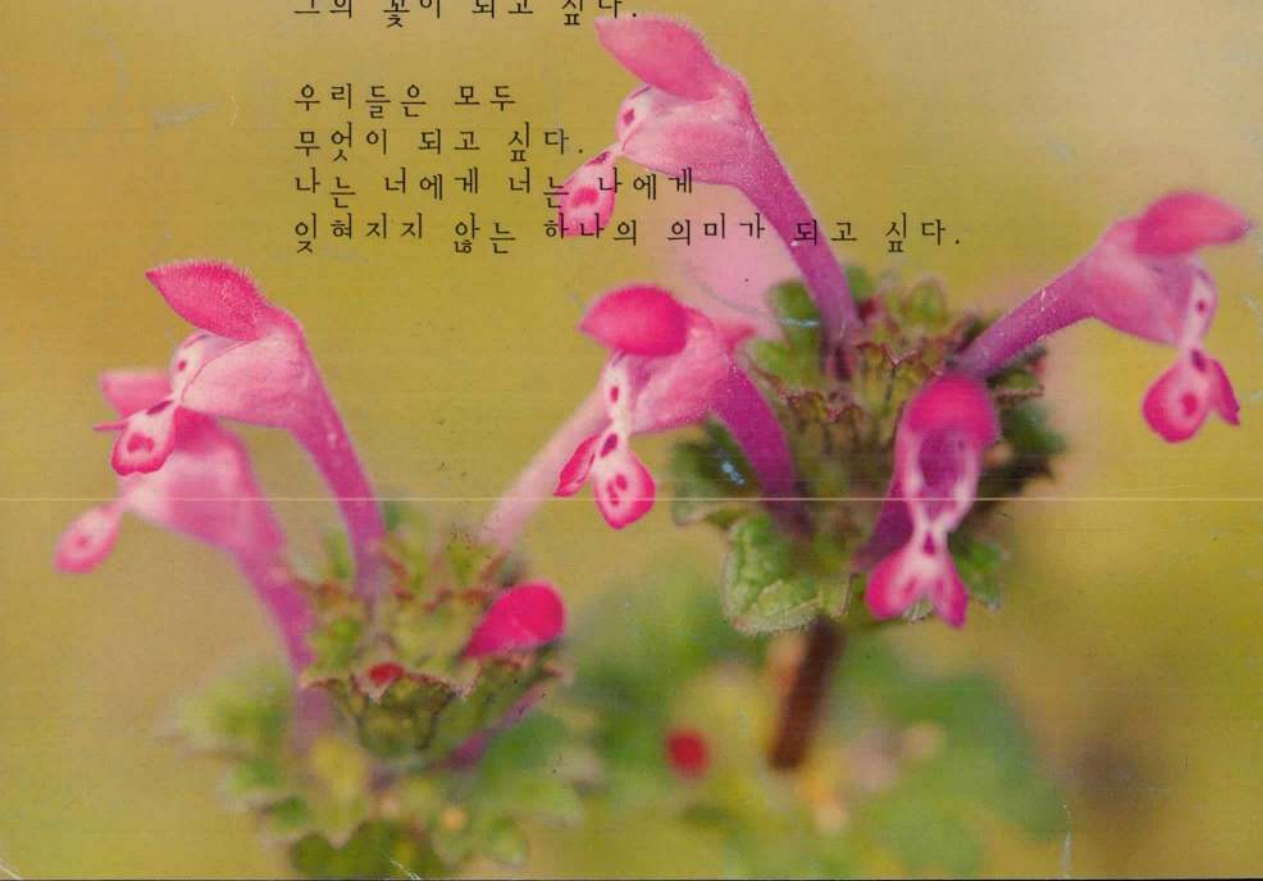
문 의 02)506-6233, 효)6233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